



| | |
|-------------------|-------------------|
| 코스피(12일 전주 대비) | 코스닥 |
| 2086.66 (-23.93P) | 681.17 (-13.00P) |
| 환율(달러당 원화) | 금리(국고채 3년물) |
| 1179.20 (+8.8원) | 1.424% (+0.001%p)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對日 비상계획 세워라”

귀국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
“日 규제확대 대비하라” 주문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응 방안을 찾아 현지를 다녀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무역 보복 확대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경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핵심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 대만, 러시아 등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3·5면

14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디바이스솔루션(DS) 및 디스플레이부



문최고경영진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부문 부회장과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출장 결과를 사장단과 공유하고 경영진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과 사업에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휴대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휴대폰, TV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아티스틱 스위밍, 판타스틱 선수들 14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아티스틱스위밍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스위밍 팀 테크니컬 루틴 예선에서 연기를 마친 한국 선수들이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스페셜 리포트

‘똥손’ 박원순의 ‘실험’

에스택시·제로페이 “관치” 비난에
“공정시장 위한 메기 역할 계속”

서울시는 11일 강제 배차 방식인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에스택시(S-Taxi)’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승차 거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장담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관치페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제로페이 역시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착한 결제’를 내세웠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도록 제로페이 운영을 바꿀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에스택시와 제로페이 외에도 서울시는 인심·출산정보센터, 민주주의서울,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5~2018년 서울시가 만든 플랫폼형 공공앱은 총 60개. 이 중 40%가 넘는 25개가 사업 실패로 사라졌다. 하지만 서

울시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또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손대는 것마다 죽을 쑤는 ‘똥손’이 플랫폼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제로라 제로페이’라는 말까지 듣는 제로페이의 경우도 서울시는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고 본다.

“한 달 만에 망했다”는 비난을 산 에스택시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환기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손님 골라 태우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시장에서 일종의 메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 플랫폼

- 원모어트립 서울의 체험관광 콘텐츠를 담은 포털
- 제로페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민주주의 서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민주주의 플랫폼
- 에스택시 강제 배차 방식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 공동체 주택 공동체 공간과 규약을 갖춘 입주자들의 주택



일러스트 손미경기자 sssmk@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 챌린지쇼 | 기업설명회(IR) 엑스포

2019. 7. 17(수)~18(목)

서울 코엑스 C홀

핀테크·가상화폐·일자리까지... 금융의 미래를 만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7월 17~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국 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 주제는 ‘핀테크 챌린지 쇼’입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핀테크 랩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비롯해 부동산·세무·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열립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의 모의 면접과 한미약품·한국토지신탁·에스모 등 20여 개의 상장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 엑스포’도 진행됩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대한민국 금융대전 사무국 (02)799-2688
- 사전등록: <http://fnexpo.etoday.co.kr/>
- 후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www.nextrise.co.kr

벤처·스타트업의 더 큰 세상,
KDB산업은행이 열어줍니다!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19

국내외 유수의 벤처·스타트업, 대기업, VC, Accelerator, 창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KDB산업은행이 국내 최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Fair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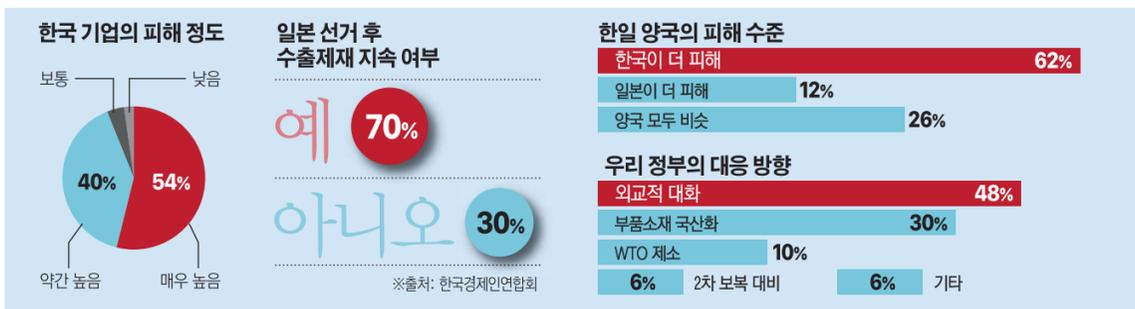
2019.07.23(화) ~ 24(수) Coex 1층 ~ 3층
KDB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DB산업은행

〈통상 전문가 10명 중 7명〉

“日 수출규제, 참의원 선거 후에도 지속될 것”

전경련, 전문가 50인 설문
 지지자 결집 등 정치적 활용 분석
 他 분야 추가 제재 우려 목소리
 응답자 60% “제재 장기화 뎀
 日보다 韓기업 피해 더 커질 것”



통상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가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얽힌 실타래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영향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 등 내부 정치용으로 일본의 이번 수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본의 수출 제재에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높다(54%)’거나 ‘약간 높다(40%)’고 응답해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 비중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예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48%)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의 순이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채널인 ‘한일경제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피해 기업에 1000억 지원”

중기부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9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 규제대응 TF’를 가동했다.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법무부 TF로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시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당초 예산 소진을 추경안으로 1080억 원, 컨설팅 사업은 일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 36억 원을 제출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韓·日, 23~24일 WTO서 2차 공방전

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인정 양국 평행선... 해법 도출 불투명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스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다시 격돌하게 됐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23~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샤 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해 WTO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한일 양국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WTO 논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사급이 참여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한국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일본에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조치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은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반이사회 하부 기관에 해당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9일 한일 양국이 각자 의견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는 참사관급 회의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국에서 백지아 대표가 참석했고 일본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보내 맞불을 놓았다.

당시 회의에서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전 세계 산업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이사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삼국이나 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은 WTO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며 문제 해결을 서두르려 한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너무 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자리는 국제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5조외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휴대전화·TV 등 쏠사업 영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이재용 부회장, 긴급 사장단 회의... 산업계 ‘전전긍긍’

日 “내달 15일 韓 화이트국가 제외”... 1100여개 전략물자 확보 비상
삼성전자, 중·러 등 거래선 다변화... 국내 소재산업 육성 방안 검토
배터리소재 수입 화학업계 ‘발등의 불’ 2차전자·車산업도 피해 우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15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략물자 1100여 개가 그 대상이다.

기계, 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중간재를 사실상 일본이 손에 쥐고 있어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휴대전화와 TV 등 모든 제품에 일본 제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출장에

서 돌아온 다음 날인 13일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그는 사장단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본이 수입 통제를 확대할 경우 반도체 부품은 물론 휴대전화와 TV 등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핵심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 대만, 러시아 등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학 업계 역시, 비상 계획을 세웠다. 배터리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분리막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는 일본 아사히카세이와 도레이가 1, 2위를 차지한다. SK이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친 후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션은 분리막을 자체 조달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부를 수입해 쓴다.

또 양극재 기준 일본산 비중은 40~50%로 추정된다. 음극재와 전해액은 일본산 비중이 30~40%로 예상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소재 공급선을 중국, 유럽으로 다각화하고 있지만, 일본 거래선이 끊기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신철 LG화학 부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상황별 전략 수립)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2차전지의 경우 연말까지 일본 제재가 지속된다면 배터리 생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LG화학은 2차전지 소재의

일부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KB증권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일본 수출 금지의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수출이 금지된다면 배터리 생산이 소폭 감소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 의존도는 낮겠지만 리스크는 상존한다. 1대의 완성차에는 3만 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 소재나 부품의 수출 규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한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차, 3차 부품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 게다가 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이 부품 생태계에서 이탈하면 일정 수준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면서 “문제는 이런 변수가 산업 차원이 아닌 글로벌 역학 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기업으로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R&D 세액 공제·예타 면제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기에 따라 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음 달 22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日 대응’ 추경 3000억 편성
예칭가스 R&D 세액 공제...
예타 면제·규제 완화 등 검토
무역분쟁 우려 맞대응은 자체

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다. 백색국가 제외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과 양자협 등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세제·행정절차 지원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3000억 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요청한 1214억9000만 원 등 각 부처의

예산을 취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에칭가스는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하나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R&D에 대해선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 사업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소재 1조 원 투입을 제외한 5조 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가 차제에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주요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제외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 맞대응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 일본 측 조치가 아직 우리 기업의 피해로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대응이 자칫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아직까지 실질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맞대응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일본과 양자협, 미국·세계 무역기구(WTO)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함을 입증,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공동체 주택’서 ‘S택시’로 시장 가고 ‘제로페이’ 결제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

대박 난 부천·인천화폐...‘제로페이’의 미래?
모바일·카드 타입 동시 출시 ‘김포페이’
중이형 지역화폐 단점 보완 ‘편리성 업’

수도권 일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페이’들을 출시해 주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제로페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시 석 달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부천페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페이는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된 후 카드발급 3만 8000여 장, 일반판매 약 66억 원(정책발행 포함 시 100억 원)에 달하며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도입한 총전식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 역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심작 제로페이는 발걸음이 더디다. 결제방식도 간단하고 혜택도 지역화폐들을 능가하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사용자들은 제로페이가 익숙지 않은 데다가 불편하다고 지적한다.

지역화폐가 인기몰이한 이유로는 편리성과 인센티브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국 최초로 모바일과 카드형 둘 다 출시한 지역화폐 김포페이의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페이는 기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합친 형태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바일과 카드 결제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중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K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코드 결제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니 청와대 청원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하면 공감→토론→정책 반영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안 등 편성 결실

국민에게 청와대 청원이 있다면 서울시민에게는 ‘민주주의 서울’이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등록된 제안에 대해 30일 동안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



고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으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의 검토, 기획, 숙의를 통해 공론 의제로 최종 선정된다. 시민토론 공론장의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넘으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이곳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실제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 보건소 내 난임부부 시술 허용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 건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한 달간 시민 찬반투표를 진행, 총 1459명의 투표자 중 1350명이 찬성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도심 주거문제 해결 대안 ‘공동체 주택’

입주자들 건축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 자발적 규약 마련해 주거공동체 꾸려

‘공동체 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등을 대신해 도심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자들이 주체가 돼 건축에 참여하는 공동체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의 독립된 생활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안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체를 꾸려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들은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스스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공동체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공동체 주택으로는 △도전속(청년 기업가 임대주택) △청년 협동조합주택 △막굽(예술인 협동조합주택) △보린주택(홀몸어르신 임대주택) △연

극인 공동체 주택 등이 있다.

공동체 주택 공급 방식은 △입주 희망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사들인 뒤 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민간형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형 △서울시가 제공한 땅에 입주자들이 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민관 협력형 등 다양하다.

서울시는 중랑구와 함께 면목동 일대의 활용하지 않는 사유지에 공동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재로변에 있는 사유지 14곳으로 면적은 총 1527㎡다.

승차 거부 없는 택시 호출 앱 ‘에스택시(S-Taxi)’

앱에 최대 반경 1km 이내 빈 택시 표시 이용객이 직접 선택... 강제 배차 방식

강제 배차 방식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에스택시’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끝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시민이 빈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 승차앱 ‘S-Taxi(에스택시)’는 거리에서 ‘빈 차를 보고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목적지를 표출해 운전기사가 승객을 고르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가 앱에서 빈 택시를 보고 탈 수 있다. 승객이 빈 차를 보고 호출하는 방식으로 최대 반경 1km 이내 택시가 대상이며 택시 기사는 휴식, 교대, 식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에 서비스 개선을 맡기로 했다. 서

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업계, 플랫폼 업체가 시민 관점에서 서비스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주요 사항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체험관광상품 한눈에 ‘원모어트립’

마케팅 채널 부족한 영세업체 판로 열고 외국인 개별 관광객엔 이색 체험 콘텐츠

케이팝(K-POP) 스타들과 사진 찍기,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에서 1일 플로리스트 되기, 한복 모티브로 떡 장식하기, 서울 도심 뒷골목 탐험하기 등 서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체험관광상품을 ‘원모어트립’에서 만나볼 수 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과 서울의 이색 체험관광 상품 콘텐츠 공급자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온라인 플랫폼 ‘원모어트립’은 2016년 문을 열었다.

원모어트립은 ‘한 번 더(one more) 가고 싶은 서울여행(trip)’이라는 의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매력을 홍보한다. 서울의 체험관광 콘텐츠를 담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포털사이트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본력과 마케팅 채널이 부족해 판매 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에는 판로를 열어주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체험상품을 통해 맞춤형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민관 상생형 운영모델’로 전환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김진희 기자 jh694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靑 국가안보실 2차장〉

〈日 수출규제 문제점〉

김현종 “美 세계 공감”… 중재역할은 거부 ‘한계’

美 행정부·의원 등 만나 日 일방적 조치 부당함 알려 한미일 고위급 회동 불투명… 한일 갈등 장기화 우려

김현종(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이런 입장에 세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김 차장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갖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이 13일 ‘한미일 3국 관계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

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답을 대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며 한미일 고위급 회동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금 미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NHK 인터뷰에서 “(한일 양측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한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6~18일 방한한다.

이에 김 차장은 “언론은 자주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국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고위급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김 차장은 “한미는 언제든지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한일관계 외에도 북핵문제, 미중관계, 중동 정세에 대해 미국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과 면담했으며 상하원 의원들과도 만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이 중재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도쿄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첫 양국 실무회의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번주 北美 실무접촉 재개될까

美 제의에 北은 침묵… 北 “南과 대화 필요 없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주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북측에 실무협상을 갖자고 제의했고 현재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에서 답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3국으로는 스웨덴 등이 거론된다.

미국 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은 새 협상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 김명길 전 주베

트남 대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전후에 비건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북미가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선전매체를 통해 남한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북미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에는 ‘한미 공조’가 지속되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방글라데시 다카시의 영원무역 다카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총리 왼쪽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78일 만에 추경 심사... 與野 힘겨루기

與 “19일까지 처리... 증액 필요” 野 “총선용 퍼주기... 대폭 삭감”

6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접수한 지 78일 만이다. 예결위는 15일 종합정책질의와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출발선부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19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필요한 지역과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을 사수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베풀고 있다. 이번 추경이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을 지원한다며 편성됐지만 실제 내용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용면에서 ‘단기 일자리 품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홍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가 다수 있어 현미경 검증 등을 통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부는 6조7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한다”며 “별써 세수도 줄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다.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아직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 군 관련 모랄해저드 사건이 잇따르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여야 감정싸움이 거세지면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70th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KYOBO 교보증권

2019.01.01 - 2019.12.31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EVENT 1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 대상: 로보서비스(투자익달인, 파보, 스톡포트) 이용 무료
 - 기간: 2019.01.01-2019.12.31
 -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EVENT 2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 대상: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 기간: 2019.01.01-2019.12.31
 - 대상: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어있는 계좌 개설 건

EVENT 3 해외주식 담보대출 인하 이벤트
 - 대상: 해외담보대출 연 4.1% 적용
 - 기간: 2019.01.01-2019.12.31
 -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EVENT 4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 대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 기간: 2019.01.01-2019.12.31
 -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 대상: 이벤트 기간에 비어있는 또는 온평면적 채입을 이행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증권계좌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 인증
- 3 주소 등 정보 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 인증
-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험금과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정 담보비를 미달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면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주식매매는 투자 전도, 거래시간, 단매, 대량매매 등 국내 제도 차이를 주의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투자목적에 맞는 상품 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100만 원 이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면제 혜택은 1년 1회 적용, 증권거래세 및 신규계좌만 해당.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 (비면역)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는 수익담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文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근로개선 당장은 못해” 김상조 실장 “2.9% 인상이 소수성 폐기 의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은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문 대통령

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임금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경쟁의 발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 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

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지만 학비 등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조건 개선은 여러 가지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장기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소득 하위 20%〉

숙박·음식점 고용 회복세... 1분위 살림 나아질까

2분기 취업자 1만7000명 증가 저소득층 가계소득 개선 전망

1~2분위 소득 감소에서 비롯된 최악의 양극화가 2분기부터 개선될 조짐이다. 저소득층의 주된 취업처인 숙박·음식점 등에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증가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지난해 1분기 9만8000개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는 감소 폭이 14만2000명까지 확대됐다. 올 들어 1분기 감소 폭이 5만7000명으로 축소되더니 2분기 증가로 전환됐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종사

상 지위별로 임시직 취업자 감소 폭이 5만3000명으로 축소됐다. 임시직 취업자는 지난해 1분기 12만4000명, 4분기엔 17만명 감소했다가 올 1분기(-12만300명)부터 감소 폭이 둔화했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의 취업자 수는 저소득층 가계소득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중 임시직, 소득 분위별로는 1~2분위(소득 하위 0~40%) 비율이 높아져서다. 두 산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0% 급감했다. 소득도 17.7% 줄었다. 고용이 소폭 개선된 올 1분기에는 1분위 소득 감소 폭이 2.5%로 완화하고, 2분위는 증가로 전환됐다.

이 같은 추이를 고려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된 2분기에는 1~2분위 가구의 소득도 개선이 예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선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개선이 1분위보다 2분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10분위로 봤을 때 1분위에 3분위의 소득 개선세가 뚜렷했다”며 “1~2분위(5분위 기준 1분위)는 가구주 연령을 볼 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 급속한 개선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은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듯

18일 금통위 주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성장률과 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 무역보복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9면 15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억1700만 달러)과 견줘 2.6% 줄었다. 7개월째 하락세다. 1분기(1~3월) 중 경제성장률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0.4%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3.2%) 이후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한은도 이번 주로 예정된 수정경제 전망에서 당초 전망치 2.5%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두 달 보류여간의 표류 끝에 겨우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갔으나 야당의 반발로 당초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은과 정부에서도 금리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5월 말 금통위에서 밝힌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한산한 日 브랜드 매장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내 일본 패스트패션(SPA)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日·EU·美 통상압박에 韓 포위

日 수출 규제 현실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 1%대 추락 우려 ILO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착수...美, 車 관세도 부담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국의 통상압박에 포위된 형국이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에 따른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절차 착수, 11월 결정될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악재다. 일본이 규제에 들어간 소재는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생산·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내달 한국을 전략물자(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통제 우대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규제 대상 소재 품목이 1100여 개로 늘어 주력산업 전반으로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4일 EU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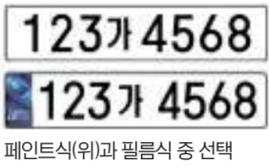
70여 개국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무역제재 착수를 의미한다. 비준 미이행 시 EU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인 관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가.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어 비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11월 발표할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조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이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 사안별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車 번호판 8자리로 바뀌는데...카메라 90% 인식 못해

9월 이전 업데이트 안 하면 아파트·쇼핑몰 등 진입 못할 수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뀌는데 따른 아파트와 쇼핑몰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판이 바뀐 신차의 주차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기존 7자리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하려면 쇼핑몰·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현재 쇼핑몰·주차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

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 대 수준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에 불과하다. 다만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시도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이전까지 업데이트가 완료



페인트식(위)과 필름식 중 선택

되지 않을 경우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큰 불편이 예상돼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와 한국주차시설비협업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데이트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필름식 번호판 도입은 제품 개발이 늦어져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 업

: 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정답이 아닌 해답을 함께 찾는 새로운 업(業)으로써
사회와 기업을 함께 UP시킴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이 'UP'될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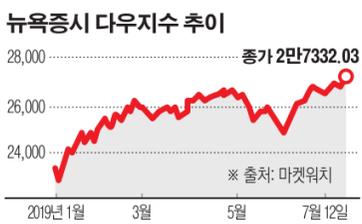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사상 최고’ 美 증시 고? 스톱?

경기침체 전조 ‘장단기 금리 역전’ 고착화... 금융시장 과열 우려

금리 역전 속 증시 강세 수차례 진행 고점 도달 후 추가 가파른 하락 보여 G2 분쟁 →실적악화 →중지부 가능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에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금융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이냐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1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분석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12일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11일 사상 처음으로 2만7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12일도 0.9% 상승하는 등 순항을 지속했다. S&P500지수는 12일 3013.77로 마감하면서 증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선 고지에 안착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그룹의 바이런 빈 부회장은 “주가 상승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며 뉴욕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60년간 경기침체를 적중시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일드커브(Yield Curve)’는 12일에 마이너스(-) 1.6bp(bp=0.01%포인트)로, 일주일 전의 -19bp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런 상승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다.

문제는 일드커브가 여전히 ‘네거티브(Negative)’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는 2.14%로, 1.8%대인 2년 만기와 5년 만기 미국채보다 훨씬 높다.

국채는 물론 모기지과 은행 예금 등의 장기 금리는 미래 위험을 포함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뉴욕증시 강세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경기확장 국면이 끝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수한 상태에서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향후 경기가 침체하면 지금과 같은 금리로 채권을 사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신문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만기 미국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총 6차례 있었다. 당시 뉴욕증시는 고점까지 평균 29% 상승했다. 그 후에는 어김없이 미국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주가도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신문은 경종을 울렸다. 일본에서도 버블이 최절정에 달했던 1989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심각한 경기후퇴와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한편 어닝시즌이 15일 씨티그룹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월가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번 주에 막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증시 강세에 중지를 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2분기 S&P500에 속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2분기 실적 가이드스(Guidance·안내)를 내놓은 114개 기업 중 77%가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맨해튼 ‘42년 만에 정전’ 타임스퀘어도 암흑천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 타임스퀘어 일부 전광판 불이 꺼져 있다. 공교롭게도 1977년 바로 이날 뉴욕에서 25시간 지속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정전에 약탈과 절도 등이 잇따르면서 뉴욕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42년 뒤 같은 날 발생한 이번 정전은 3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시민도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날 정전은 변압기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뉴욕/AFP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폐북, 50억 달러 벌금 맞아도

“한 달치 매출에 불과”

美 대선 당시 정보관리 소홀 책임 FTC, 벌금 합의안 승인했지만 폐북 주가 나스닥서 1.8% 상승 일각선 ‘숨방망이 처벌’ 비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약 5조895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은 최근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위원들이 화해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FTC를 통과한 안건은 법무부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FTC 결정이 법무부에서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WSJ는 전했다. 화해 조건에는 벌금은 물론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부의 기타 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직 이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FTC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WSJ는 강조했다. 또 종전 기록인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FTC는 최초로 적발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어기면 폭 넓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FTC는 지난해 CA 스캔들이 불거져 나온 이후 1년 넘게 페이스북을 조사했으며 특히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합의한 판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에 약속했다. 그러나 CA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터지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거대한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는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나스닥거래소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이날 1.8% 상승한 것도 벌금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에서 비롯됐다.

이번 벌금 규모는 페이스북이 미리 예상해 회계장부에 계상한 총당금 30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는 페이스북이 지난 1분기에만 150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며 작년 전체 순이익은 220억 달러에 달했다며 사상 최대라는 FTC 벌금이 사실상 페이스북의 한 달 매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와의 대립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할 전망이다. WSJ는 지난달 FTC가 페이스북과 아마존닷컴의 반독점 위반 관행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라며 일격을 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B인베브, 홍콩증시 상장 일단 보류

올해 세계 최대 IPO로 주목 투자 열기 기대에 못미쳐 철회

올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세계 1위 맥주업체 안호우저부시인 베브(AB인베브)의 아시아법인 기업공개(IPO)가 불발됐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1위 맥주업체 AB인베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체인 ‘버드와이저브 루잉컴퍼니APAC(Budweiser Brewing Company APAC)’의 홍콩증시 상장 계획을 이날 철회했다. AB인베브는 상장 철회 이유로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B인베브는 당초 아시아법인인 버드와이저APAC를 오는 19일 홍콩증시에 상장해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5542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 열기가 예상대로 크게 못 미치자 결국 IPO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AB인베브가 책정했던 주당 40~47홍콩달러 공모가가 너무 높으며 주당 40홍콩달러 이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

알렉스 왕 앰플캐피털 헤지펀드 이사는 “최근 시장 불안 속에서 기업들이 상장을 위한 적절한 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콩에서 최근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로 투자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AB인베브가 투자자들을 과대평가했는지 모른다”며 “비록 가치가 고평가됐지만 상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부채 줄이기였다는 점에서 AB인베브는 저평가된 가격에 IPO에 나서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인베브는 IPO를 통해 지난해 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 부담을 덜고 아시아법인의 인수·합병(M&A)에 실탄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IPO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B인베브 주가는 결국 뉴욕증시에서 이날 3% 급락한 86.94달러로 마감했다.

한편 AB인베브의 상장 철회를 두고 WSJ는 현재 IPO 시장이 처한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 IPO 열기가 뜨거워 미국과 달리 아시아와 유럽은 글로벌 경기둔화나 무역전쟁 불안으로 활동이 위축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중 무역 전쟁에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등이 겹치면서 최근 홍콩 증시에서 상장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 일가가 거느리는 CK허치슨그룹 산하의 제약업체 ‘허치슨차이나메디테크’는 지난달 홍콩거래소에 추가 상장하려고 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앞서 물류·부동산개발업체인 ESR케 이먼도 현 시장 상황을 이유로 홍콩거래소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폭스바겐, 포드 자회사에 26억 달러 투자

자율주행·전기차 개발 협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종연횡이 치열하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과 미국 포드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포드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아르고AI에 26억 달러(약 3조654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아르고AI의 기업가치는 70억 달러로 경증 뛰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자동차제조회사인 폭스바겐과 포드가 손잡으면서 상업용 자율주행차량 개발 경쟁에 새로운 강자가 탄생했다고 WSJ는 평가했다.

짐 해켓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바겐과 포드는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2018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차량 판매 순위(단위: 100만 대)



도 경쟁을 계속하겠지만 아르고AI에서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비교 불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세상에 어울리는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르고AI는 폭스바겐, 포드와 함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향

후 양사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각기 독립적으로 제작된 자사 차량에 아르고 AI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 불고 있는 기술혁명에 전통강자들의 합종연횡을 부추기고 있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이번 ‘동맹’을 통해 알파벳의 자율주행차량 자회사인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크루즈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WSJ는 평가했다.

또한 폭스바겐과 포드는 전기차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이미 전기차 개발 분야에 340억 달러를 투자했다. 포드는 이를 활용해 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한 유럽지역에서 폭스바겐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점도 갖는다. 김서영 기자 0jung2@

“소득증가” vs “실업증가”… 해외서도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갑론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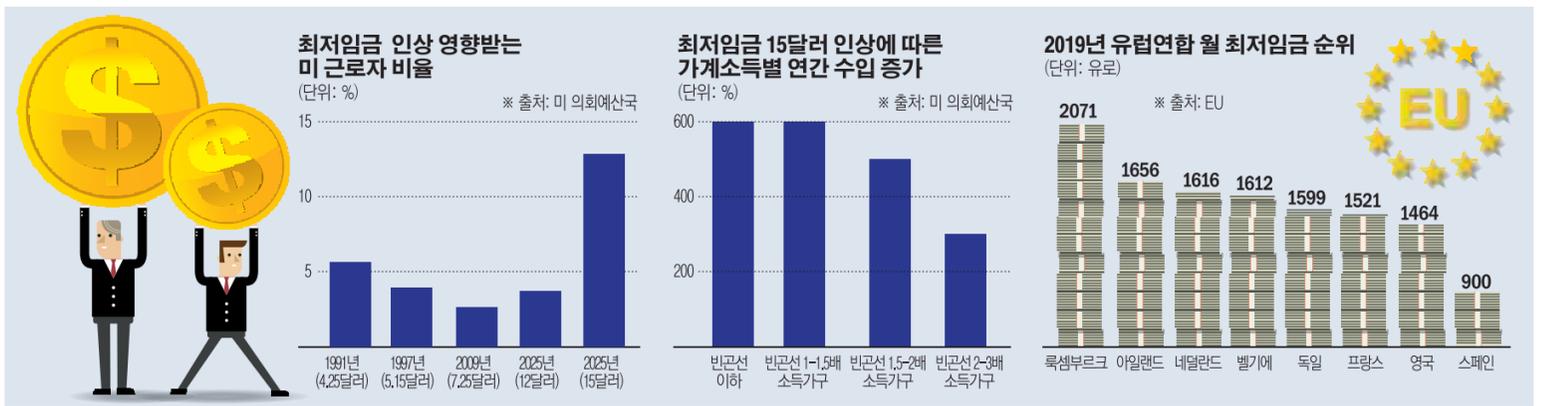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 지지를 선언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야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 오는 2024년까지 현행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두 배인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181명, 상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임금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은 지난 3월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찬성 28, 반대 20으로 통과된 뒤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 발 앞섰다. 올 1월부터 EU 국가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다. 인상폭도 컸다. 국가들 대부분이 10% 가깝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스페인의 경우 22%나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이는 42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럽 국가들 중 최저임금 순위가 10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다. 아일랜드는 25% 인상했고 프랑스도 노란조끼 시위 이후 최저임금을 152유로로 대폭 인상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태국은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2013년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최저임금을 최대 7% 인상했다. 지난 3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군부정권은 선거 기간 동안 최저임금 40% 인상을 약속했다. 베트남도 지난해 6.5%인상에 이어 올해 5.3% 인상에 합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제프리 클레멘스 미 경제조사국 경제학자는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美 대선 앞두고 ‘임금인상법’ 상정 스페인 22%...EU 인상률 10% 육박

“빈곤가구 되레 일자리 감소” 주장에 “한계노동자, 노동시장에 유인” 반박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시장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하고 훈련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클레멘스는 유럽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도 언급했다. 2012년 그리스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부채 관련 협약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내렸는데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헝가리는 최저임금을 중위 소득의 35%에서 55%로 인상한 결과 2018년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인상 비용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한 후 고용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미 의회 예산국(CBO)이 지난주 펴낸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CBO는 현재 연방 최저임금

인 7.25달러가 10, 12, 15달러로 인상됐을 때 각각 얼마나 고용을 감소시키는지 대해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달러로 인상했을 경우, 130만 빈곤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가 최대 370만 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실업률을 현 3.7%에서 6.0%로 2.3%포인트 높인다는 분석이다.

CBO는 수십 개의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감소가 소득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총 90억 달러의 가계수입 감소가 발생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특히 젊은 흑인 계층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실업률은 19.9%로 국가 평균의 5배 수준이다.

그러나 CBO의 분석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들의 분석이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경제학자인 케빈 린츠와 존 부어하이스는 새 통계기법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 최저임금 인상 5년 후 예측에서 아주 적은 양의 고용감소가 나타났지만 CBO가 예측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오히려 한계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다. 블룸버그 역시 기존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동시장은 아직 연구중인 분야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빈곤계층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물가, 지역마다 달라... 차등적용해야”

美 민주당, 최저임금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 글로벌 화두가 된 데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년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빈곤층은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starvation wage) 수준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도 5명 중 1명이 빈곤에 몰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유럽연합(EU)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9.0%인 1550만 명이 소비지출과 주택 난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일의 실업률은 5.1%로 1990년 10월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완전고용에 근접한 가운데서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문제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독일 뿐만 아니라 EU 전체적으로도 22.5%의 시민이 빈곤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근로빈곤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빈곤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런 와중에 ‘15달러 투쟁’을 벌이고 있

는 미국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변수를 감안한 최저임금에 저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 생활물가에 연동하지는 제안을 내놓았다. 가령 중위소득이 연간 5만7000달러를 넘어서는 뉴욕주와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웨스트버지니아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현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2009년 이후 변한 적이 없다면서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낮은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 15달러는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정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논의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보조금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바꾸자는 주장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김서영 기자 0jung2@

본 광고는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트 공모전 포스터(일반) 대상 수상작(신우식)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지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보급으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가스공사

정쟁에... 국회서 잠든 금융 혁신法

금융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데이터 3법' 등 보험과 핀테크 분야 혁신 핵심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금융업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1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6일째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의 불발로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위원회 소속 야당의 원실 관계자는 "여야 사이에 정치적 문제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개회 48시간 이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날 오후까지 공지사항은 없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논의할 시간이 없는 셈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논의 역시 기약이 없다.

20대 국회 정부위원회 금융 관련 주요 법안

| 분야 | 법안명 | 주요 내용 |
|----|---|---|
| 보험 |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발의) |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 신용정보보호법(정부 발의) | 비식별 금융 빅데이터 분석 활용 개인정보 감독 기능 일원화 등 |

여야 일정 합의 불발... 이번주 정부위 법안소위 개회 희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데이터 3법 적정 시기 놓칠 가능성

문제는 국회의 공회전으로 금융 혁신 법안 통과 적정 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보험업계는 10년째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전자서류 전송요청을 통해 곧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해당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가입자의 32%만 보험금을 청구한다"며 "간소화 문제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부

야 신사업을 위해 내놓은 데이터 3법도 제자리걸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신용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금융 핀테크 업체와 비금융사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개발을 위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위 논의가 멈춰 서면서 연내 데이터 3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여야 간 신용정보 보호법 견해차도 변수다. 여당은 야당에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결국, 법안 통과까지 논의 과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의 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는 더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몇몇 법안은 수년째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핀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행사 첫날인 12일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사진 왼쪽)이 현장을 방문해 스타트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우수 인재 90여명 발굴" 신한금융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신한금융그룹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인재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을지로 소재 신한타워에서 개최한 '신한핀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에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발표한 신한핀처스랩 육성 스케일업(Scale-Up) 전략의 일환으로 신한핀처스랩의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인재의 매칭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준비됐다.

취업박람회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한핀처스랩 출신 스타트업 37개사가 참가했으며, 개발·기획·경영지원·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 면접이 이뤄졌다.

신한핀처스랩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채용을 고려중인 우수한 인재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면접·상담 Zone'과 '강연·토론 Zone'의 두 구역으로 나눠 행사가 진행됐다. 면접·상담 Zone은 기업과 구직자간 '사전 매칭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 스타트업과 우수인재의 1:1 현장면접을 진행해 인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연·토론 Zone'에서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인 와디즈 신혜성 대표와 어니스트 펀드의 서상훈 대표가 각각 '스타트업과 창업가 정신',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Story)'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보름 기자 fullmoon@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광수의 특명 "日 규제 등 잠재 리스크 점검하라"

농협금융, 상반기 성과 분석회의 "불확실성 클수록 관리 역량 중요"

김광수(사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경기둔화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제한 등 하반기 리스크 잠재요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 CEO 및 주요 경영진 100여 명과 함께 '2019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농협금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금융 활성화 △자산관리 역량 강화의 3가지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은 상품 위주의 디지털화에서 벗어나 전략,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등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 전략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혁신금융 부문은 그룹 차원의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전반적인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금융 추진협의회'와 '벤처캐피탈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 활성화는 농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활성화하고, 디지털산업 중심의 혁신산업에 투자하여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객과 농협금융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은행·증권·자산운용의 시너지 클러스터를 더욱 단단히 결합하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고객 기반을 제공하고, 증권은 과점과 중심 영업 등 WM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산운용은 수익률이 높은 우수한 투자상품 공급을 공급하는 협업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농협금융의 존재 및 성장기반의 핵심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고객"이라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금융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자동입력: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검증: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 | | | |
|--------|---------|---------|----------|-------|
| 회계관리 | 세무조정 | 인사급여 | 영업관리 | 생산관리 |
| 외주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무역(수출입) | 서비스관리 |
| 공사현장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 바로수금서비스 | 금융CMS서비스 | |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Let's KB 환전 페스티벌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타·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수익성 얼마큼 회복했나”...정의선, 해외법인 금고지기 소집

지역별 재무상태 파악 후 해외법인장 회의 주제 ‘V자 회복 원년’ 같은 현대차 새 경영 메시지 주목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글로벌 권역본부와 법인의 재무책임자를 본사에 소집한다. 법인장 회의에 앞서 상반기 재무현황을 점검하고, 수익성 회복에 중점을 둔 하반기 전략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각 재경본부는 15일 글로벌 권역본부 및 법인별 재무책임자들을 서울 양재동 본사로 소집한다. 이들을 통해 상반기 재무현황을 보고 받

고 하반기 전략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를 ‘V자 회복’의 원년으로 삼았다. 판매 800만 대를 공언하며 양적성장을 추진하던 과거(2015년)와 달리 질적성장과 함께 수익성 회복을 중점 전략으로 삼은 것.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로 현지 시장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만큼 올해는 판매 성장보다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역시 올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중국의 판매 감소(-4.1%)와 미국, 유럽의 저성장 탓에 지난해 보다 0.2% 증가한 9244만대를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정 부회장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1공장의 폐쇄와 매각을 단행했다.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고정비용이 증가한 만큼 효율성을 위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기아차의 경우 동풍열달기아의 합작사에게 전기차 공

장 형태로 설비를 매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판매 목표치인 760만 대 판매에 약 15만 대가 모자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 부회장은 재무책임자 소집을 통해 지역별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15~16일 사이 하반기 해외법인장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법인장들은 법인장 회의에 앞서 7월 둘째주에 먼저 귀국해 △경영현안 간담회와 △경영환경 전망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사전 행사를 통해 거점별 시장 동향 및 판매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하반기 법인장 회의를 통해

2019년 ‘V자 회복’ 원년을 강조했던 정 수석부회장이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현대의 경우 2012년 공장가동률이 107%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0.5% 수준으로 반토막난 상태”라며 “베이징 1공장의 폐쇄로 전체 가동률이 상승하면, 지분법에 따른 현대차의 세전이익은 약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판매대수보다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모비스, 운전 중 ‘동공 지진’도 감지

‘부주의 경보시스템’ 개발 2021년 상용차부터 공급

현대모비스는 14일 동공주적, 안면 인식이 가능한 수준의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DSW·Driver State Warning syste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개발한 경보 시스템은 차 실내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안면을 인식하고 졸음운전, 주의분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을 파악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눈·코·입·귀 등 특징점으로 운전자를 식별하고, 동공인식으로 시선을 추적해 부주의 운전 검출 정확도를 한 차원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내카메라가 추출한 운전자

상태 정보를 차속, 변속, 핸들링 등 차의 사시 정보와 융합 분석하는 데 성공하면서 신뢰성을 더했다.

이 정도 운전자 부주의 감지 기술은 해외 일부 고급 승용차에만 한정 적용되고 상용차는 양산 사례가 없다.

이 시스템은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중대형 트럭 등 상용차종부터 공급한다.

현대모비스 EE(Electrical & Electronics) 연구소장 장재호 전무는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등 탑승자 감지 기술은 자동차가 운전자를 인식하고 이해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의미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버스과 승용 차종에도 확대 공급을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중고차 인기 1위는...20대 아반떼AD, 30대 스파크

상반기 ‘중고 거래’ 살펴보니 상위 10개 중 7개 ‘경·준중형’ 수입시장 벤츠 E클래스 독주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와 준중형차가 판매량 순위권에 올랐다.

14일 중고차 직영 거래 업체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올 1~6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10위권 내 7개가 경형·준중형이었다.

쉐보레 스파크가 판매량 2위에 기아차 올 뉴 모닝이 3위에 올랐고, 더 넥스트 스파크(4위)·아반떼 AD(5위)·레이(6위)가 뒤를 이었다. 기아차 더 뉴 모닝과 K3는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델의 인기는 20~30대 소비자가 견인했다. 20대는 아반떼 AD를, 30대는 스파크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둘은 현재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도 살 수 있어 가성비 좋은 모델로 여겨진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가성비’가 중고차 구매 추세로 자리잡

2019년 상반기 중고차 베스트 셀링 모델

| 순위 | 제조사 | 모델 |
|-----|-----|------------|
| 1위 | 현대 | 그랜저HG |
| 2위 | 쉐보레 | 스파크 |
| 3위 | 기아 | 올 뉴 모닝 |
| 4위 | 쉐보레 | 더 넥스트 스파크 |
| 5위 | 현대 | 아반떼 AD |
| 6위 | 기아 | 레이 |
| 7위 | 현대 | LF 쏘나타 |
| 8위 | 기아 | 올 뉴 카니발 |
| 9위 | 기아 | 더 뉴 모닝 |
| 10위 | 기아 | K3·올 뉴 쏘렌토 |

※출처: 케이카(K Car)

며 경형과 준중형 모델의 인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물의 증가 역시 영향을 끼쳤다. 아반떼 AD는 판매량 10위권에 처음 등장했다. 이 모델은 2015년 9월 출시한지 3년만에 후속 모델인 더 뉴 아반떼가 등장하며 중고차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와 수요로 연결됐다는 해석이다.

국산 중고차 판매량 1위에는 현대차 그랜저HG가 올랐다. 2017, 2018년에도 가

장 많이 판매된 이 모델은 동급 경쟁 차종보다 시세 하락폭이 적어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현대 LF 쏘나타와 기아 올 뉴 카니발이 각각 7위와 8위에 올랐다.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는 벤츠 E클래스의 독주가 이어졌다. 지난해 결산에서 1위에 올랐던 BMW 5시리즈를 2위로 밀어내고 벤츠 E클래스가 1위를 차지했다.

수입 SUV·RV 부문에서 연초부터 판매 상승세를 나타내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4위를 기록했다.

케이카는 최근 동급 대형 SUV인 현대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끌며 상대적으로 포드 익스플로러의 시세가 떨어져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익스플로러 2017년식은 현재 300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인국 K카 대표이사는 “베스트 셀링 순위권에 더 넥스트 스파크, 아반떼 AD, LF 쏘나타 등 출시된 지 5~6년 된 모델이 올랐다”며 “이를 보면 신차 교체 주기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R&D캠퍼스 ‘월드 클래스’ 해커 모인다

루어워 왕 등 내달 보안기술포럼 일반인 위한 해킹체험존도 운영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제3회 ‘삼성보안기술포럼(Samsung Security Tech Forum, SSTF)’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안기술 분야의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삼성보안기술포럼(SSTF)’을 매년 개최해 왔다.

‘삼성보안기술포럼’은 보안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안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행사에서는 삼성리서치에서 보안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안길준 팀장(전무)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시스템보안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공대 컴퓨터공학과 김태

수 교수, 유명 해커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루어워 왕 교수, 미국 보안기술 스타트업 ‘티오리’의 박세준 창업자 등의 기술강연이 이어진다.

특히 보안기술 분야에서 진행되는 삼성리서치의 연구 활동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킹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킹체험존’도 운영된다.

이밖에 미래 보안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 테크 토크’에서는 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핸즈온랩(Hands on Lab)’도 열어 최근 유행하는 ‘방탈출 게임’을 활용한 보안 문제풀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가 12~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운영한 ‘카페 올레드’에서 아미라 카펜(오른쪽) 셰프가 컬러 연구기업인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여름 컬러 ‘페퍼 스템’ 조형물 앞 ‘LG 올레드 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뉴욕 맨해튼에 ‘LG 카페 올레드’

팬톤 ‘올해의 여름 컬러’ 체험

LG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212㎡ 규모의 ‘LG 카페 올레드(Cafe OLED)’를 열고 방문객들이 음료를 즐기면서 ‘여름 컬러’를 주제로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페 올레드’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 화질로 팬톤(Pantone Color Insti-

tute)이 선정한 올해의 여름 컬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팬톤이 선정한 올해 여름 컬러는 공작새의 화려함에서 영감을 얻은 ‘핑크 피코크(Pink Peacock)’, 상큼한 오렌지 색상의 ‘튜메릭(Tumeric)’, 골드빛을 머금은 노란색 계열의 ‘아스펜 골드(Aspen Gold)’, 노란빛이 감도는 녹색 계열의 ‘페퍼 스템(Pepper Stem)’ 등 4종이다.

LG전자는 이곳에 두께가 3.85mm에 불

과해 종이처럼 벽에 붙일 수 있는 월페이퍼 디자인의 ‘LG 시그니처 올레드TV W’를 비롯해 2019년형 LG 올레드TV 신제품 10대를 설치했다. 또 호주 아티스트인 데이비드 맥레오드가 제작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유명 셰프인 아미라 카펜은 팬톤의 여름 컬러를 활용해 만든 라떼와 케이크 등을 제공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은 “LG전자와 팬톤의 협업 등을 통해 LG 올레드 TV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직접 써 보세요 고객님” 체험숍 늘리는 삼성·LG

“만져보면 구매 가능성 높아”
기존 매장 리모델링 잇따라

삼성전자, LG전자가 체험형 프리미엄 매장을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성능을 시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가전을 찾길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LG베스트샵 롯데백화점 강남점·잠실점을 리모델링해 새로 오픈했다. 두 매장은 단순히 구조만 달라지지 않았다. 매장에는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인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물론이고, LG 시그니처도 전시돼 있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LG의 초프리미엄 가전이다.

방문객이 LG 가전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잠실점에는 소비자가 재질이 다른 두 바닥 소재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두 매장에는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넉넉히 마련돼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의 크기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고객을 위한 공간이 늘어난 만큼 이전보다 규모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LG베스트샵에 변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있던 LG베스트샵 대치본점 매장을 학여울역 인근으로 옮겼다. 새 매장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한 달 후에는 강서본점을 기존의 등촌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로 이전시켰다. 기존 990㎡(약 300평) 규모였던 매장은 1650㎡(약 500평)로 넓어졌다.

삼성전자 또한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복합형 체험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백화점에 입점한 삼성디지털프라자를 프



LG베스트샵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진열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이곳에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리미엄 스토어로 전환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토어는 고객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양사가 기존의 매장을 180도로 바꾸는 데는 가전 판매량을 늘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가 청소기, 의류관리기 등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전 유통업체 분야에서 삼성과 LG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베스트샵은 지난해 매출액 2조 6889억 원을 달성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2조5467억 원)를 앞섰다. LG베스트샵매출이삼성디지털프라자를 넘어선 건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성능이 과거와 달리 복잡해지면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자세한 기능을 알고 싶어한다”며 “삼성전자, LG전자는 앞으로 체험형 매장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중동 점유율 두 배로 늘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동 국가와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들어 5월까지 중동지역 건설기계 시장점유율이 13.4%로 작년 동기(6.6%)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동시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총 460여 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매출을 달성했다. 올 초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의 공식 협력업체인 아라비안 머시너리(Arabian Machinery)에 월로더 20대 판매를 시작으로, 사우디 여러 건설업체들에 19~52톤급 중대형 굴착기 70여 대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계약들을 맺었다.

특히 국가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시장에서 정부 및 민간 고객들로부터 공급계약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결합협력회의(GCC)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주변국 영업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국내 최고 ‘클린공장’ 목표 SK인천석화, 500억 투입

SK인천석유화학이 올해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SHE(안전·보건·환경) 퍼스트(First) 경영’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클린 공장을 구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부터 SHE 분야에 3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온 데 이어 올해 500억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기보수 기간 동안 배연탈질설비(SCR)를 추가로 설치해 대표적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연간 83톤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열교환망 최적화 및 원유 정제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연평균 전체 연료 사용량의 2%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3만 6000톤 감축할 예정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공유인프라를 통해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에너지 업사이클링’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시작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현대오일뱅크 ‘전기 자판기’ 단다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구축에
규제 샌드박스 1호 ‘차지인’ 협력
일반 콘센트 이용해 충전 사업

현대오일뱅크가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인 ‘차지인(車之人)’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차량용 연료의 저변이 휘발유, 경유, LPG 등 전통 연료에서 전기·수소 등 대체 연료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대오일뱅크 역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일 차지인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차지인은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220V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에 충전 과금 기능을 탑재해 일종의 ‘전기 자판기’로 불린다. 다가구 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



‘차지인’ 전기충전기 모습. 차지인 홈페이지 캡처

된 220V 전기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의 제한된 전력 설비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 전기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과금 및 제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테더링을 통한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에 설치된 무선 통신 모듈보다 고정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통해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미래 자동차의 연료를 한 곳에서 넣을 수

있도록 주유소의 변신을 꾀하면서 차지인과의 협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의 등장으로 주유소의 사업 영역이 전통 연료를 넘어 에너지 충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현대오일뱅크 역시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에 수소, 전기 등 대체 연료를 포함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전통 연료까지 다양한 차량용 연료를 한 곳에서 채울 수 있는 국내 1호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연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고양시에 수도권 첫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차지인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복합에너지스테이션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충전 인프라 솔루션을 적용하며 전기차 저변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전국 거점 도시 중심으로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해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구축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이번 협력으로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구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스마트폰으로 졸업·성적증명서 간편하게 제출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린다

이통 3사·삼성전자·KEB하나銀·우리銀·코스콤 등 7곳 협약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해 증명서 위변조 여부 즉시 확인 가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금융기업들과 손잡고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는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통신, 제조, 금융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대학 제증명(졸업, 성적 증명 등) 발행·유통 서비스, 코스콤

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에 우선 적용된다.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LG, SK, 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은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제조사-손해보험사-통신사 간 블록체인 기반 단말 분실파손보험 서비스 구축 역량 및 소프트웨어와의 블록체인 협업 경험을 활용한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역량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 부가서비스 가입 및 SKT 타워 모바일 출입통제 파일럿 경험을 살릴 계획이다. KT는 BaaS, 지역화폐 등 축적된 플랫폼 서비스 역량과 '5G 기가스텔스' 등으로 대표되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에 DID를 접목할 수 있다.

참여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의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 줄 전망이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형태다.

이는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고 투명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면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받은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들은 향후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 사원 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 통신 및 금융권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 병원 및 보험사의 제 증명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으로 구성된 금융사들과 SK텔레콤·LG유플러스·KT로 구성된 이통 3사와 삼성전자가 12일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7개 참여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중기부-공영홈쇼핑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 도입 앞장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
판매 방송 3회 보장제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중소기업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한 홈쇼핑 업계 내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를 체계적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

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게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수월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안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 또한 주어져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과기부, 5G 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실시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

국내 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 북미의

PTCRB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 시험은 단말기의 최대 출력, 수신 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 규격 적합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

월 8일 발표한 5G 전략에서 이러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했다.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단말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지리한 윤선생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 모습. 사진제공 윤선생

캠핑장·호텔·아쿠아리움...

방학 맞은 교육업체 '교실 밖으로'

윤선생, 경기도 포천에
애니메이션 테마 캠핑장
웅진씽크빅-롯데호텔월드
놀이공간 '키즈존' 오픈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교육업체가 다양한 공모전과 컬래버 마케팅으로 분주하다. 키캉스(키즈+바캉스), 키즈테인먼트(키즈+엔터테인먼트) 등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녀 동반 고객을 공략해 키즈 콘텐츠를 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무료 어학연수에 학습권을 증정하는 공모전 마케팅까지 교육업체들의 다양한 여름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교육업체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유한 교육·키즈 업체들이 캠핑장이나 호텔, 관광지 및 컬래버를 통해 여름 시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인기 애니메이션 '정글비트'를 소재로 한 테마 캠핑장을 오픈했다.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위치한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은 기존 캠핑 및 관람시설에 애니메이션 '정글비트'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접목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했다.

웅진씽크빅과 롯데호텔월드는 키캉스를 즐기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 '키즈존'을 오픈했다. 롯데호텔월드 2층에 약 100평 규모로 조성된 '키즈존'은 웅진씽크빅 유아동 북극레이션 서비스인 웅진북클럽 도서 600여 권과 놀이 교

구,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로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데 도움을 주는 북패드 등 유익한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핑크퐁 캐릭터로 유명한 스타마스터디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제휴를 맺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전국에 운영 중인 4개의 아쿠아리움을 통해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여의도 소재 한화 아쿠아플라넷63은 여름방학을 맞아 콘텐츠를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아쿠아리움 곳곳에 핑크퐁 포토존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 가면 인기 캐릭터 '바다탐험대 옥토넷'과 콜라보한 키즈 딜라이트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다. 호텔 2층에 패키지 고객만을 위해 마련된 전용 키즈 라운지에서는 옥토넷 포토존과 다양한 옥토넷 완구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신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 무료 어학연수, 학습권, 상품 개발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도 내걸었다.

edm아트유학이 후원하는 '호주 명문 아트스쿨 UTS Insearch 디자인 공모전'은 10주 무료 호주 어학연수권 등 파격적인 상품이 눈에 띈다. 시원스쿨은 캐릭터 공모전 상품으로 자사의 강의 수강권을 제공한다. 시원스쿨 슈퍼키즈 브랜드에 어울리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를 제작해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디자인 상품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재훈 기자 yes@

LG U+ "지하주차장·소형건물도 5G 원활하게"

RF·초소형 중계기 개발 구축

작은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도 5G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4일 LG유플러스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비콤과 5G RF 중계기와 초소형 중계기를 개발, 상용망 연동을 완료하고 초소형 건물 등을 중심으로 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중계기는 5G 기지국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초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소호(SOHO) 등에 설치해 5G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RF 중계기는 주로 초소형 규모의 건물에 설치되고 초소형 중계기는 소호 등에 적합하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소형

으로 개발하고, 광전송라인 연결 없이 무선으로 기지국과 5G 전파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했다.

RF 중계기는 물론 초소형 중계기에도 감시용 모듈을 탑재했다. 현장 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중계기의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점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노키아, 삼성, 화웨이 등 모든 5G 기지국 장비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돼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LG유플러스 동반성장 협력사 중 하나인 ㈜디비콤은 LTE용 RF 중계기, 초소형 중계기 등을 개발해 공급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LG유플러스와 함께 2종의 5G 인빌딩용 중계기를 개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몰캉스족’ 입맛 잡자... 소문난 맛집 다 모았다

백화점 업계, 무더위 피해 고객 방문 늘자 ‘매출 확대’ 마케팅
신세계 ‘고메 페스티벌’·갤러리아 맛집 유치 등 먹거리 차별화

본격적인 삼복 더위와 바캉스 시즌에 접어들면서 백화점들이 폭염을 피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먹거리 공략에 나섰다.

14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매출은 2017년 7월보다 4.1% 늘었다. 특히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휴가에 돌입한 지난해 7월 말(22~31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통상 여름은 바캉스 시즌으로 비수기에 속하지만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백화점에서 여름을 나는 ‘몰캉스족’이 늘면서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몰캉스족’을 잡기 위한 백화점의 행보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맛집’이다. 먹거리 공략은 백화점들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8일까지 먹거리 행사인 ‘신세계 고메 페스티벌(SHINSEGAE Gourmet Festival)’을 전점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SSG닷컴에서 선착순 할인 행사인 ‘먹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총 2만5000명에게 50% 할인쿠폰을 제



신세계 고메 페스티벌.

공한다. 매일 2품목씩 ‘자니로켓’과 ‘백미당’ 등 인기 먹거리 아이템을 선정해 최대 2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서울 맛집 여행’이라는 주제로 ‘대학로 스퀘어’와 ‘인생 카스

테라’ 등 서울의 인기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표상품은 ‘유정낙지 낙지 볶음’, ‘낙원스낵 조각피자’, ‘혜화당 만두’, ‘푸하하크림빵’ 등이다.

고급 식품관의 대명사인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의 ‘고메이494’도 최근 맛집 유치에 나섰다. ‘고메이494’는 이달 말까지 미국 남부식 치킨 버거 전문점 ‘뽕카두들 내쉬빌 핫치킨’과 레트로 컨셉 분식 전문점 ‘한양분식’을 운영한다. ‘뽕카두들 내쉬빌 핫치킨’은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의 명물로 유명한 치킨 버거 전문점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9월 이태원에 론칭해 유명세를 탔다. ‘한양분식’은 갤러리아백화점의 전신인 한양쇼핑센터의 이름을 땄다. 1980년대 부산 서동시장에서 개발된 레시

피를 기반으로 한 떡볶이와 김밥, 순대, 튀김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도 맛집 발굴 및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본점에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돈가스 브랜드 ‘안즈’를 들여왔고, 서초구 잠원동에 본점이 있는 ‘한성돈가스’도 매장을 열었다. 하반기에는 본점에 디저트 전문점 ‘익선동 세느장’과 대왕 연어 초밥집 ‘대만 삼미식당’ 등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맛집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여름 바캉스철이 예전엔 비수기였지만 점차 중요한 시즌으로 바뀌면서 폭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0.01%만을 위한 명품 주얼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은 31일까지 영국의 고급 주얼리 전문 브랜드 ‘그라프’의 ‘컬러스톤 컬렉션’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라프의 대표 아이템인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옐로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 120억 원 규모의 최고급 보석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그라프는 1960년 영국에서 설립된 후 독보적인 희소성으로 전 세계 0.01% 부호들을 위한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가성비 트렌드 발맞춰 피자 뷔페 도입했죠”

유통가 팀파워

미스터피자 SRP팀

배달시장 커지며 경쟁 심화
매장 확장 대신 내방객 확대
리뉴얼로 매출 최대 50% ↑

“과거 국내 피자 시장이 피자헛·도미노·미스터피자 등 빅3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중소 브랜드가 생겨나 선택지가 넓어졌다. 특히 배달 앱의 성장으로 중소 브랜드들도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스터피자는 배달 시장에만 치중해 할인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소비자의 매장 방문 등 다양한 브랜드 운영방식을 고민할 때다.” (김훈래 미스터피자 SRP팀장)

최근 들어 배달 문화의 대중화로 다양한 외식 메뉴들이 배달 시장에 진입하면서 피자업계도 한층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미스터피자는 매장 확장보다는 매장 재활성화(SRP)를 통한 판로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미스터피자 SRP팀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업 지원 및 마케팅, 직영점 점장 출신 등 매장 운영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팀원들은 미스터피자 본사 내에서 자리에 없기로 유명하다. 매장 현황 분석부터 리뉴얼, 리뷰까지 SRP 모든 업무 단계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SRP팀은 7월에도 10개 매장의 재활성화를 진행 중이며 무더위 속에 팀원 모두 전국 각지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김훈래 미스터피자 SRP팀장과 팀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SRP란 최소 비용, 최단 시간을 이용해 상권, 주고객층에 맞는 매장으로 재활성화하는 매장 밀착형 1:1 컨설팅이다. 최신 외식 트렌드인 ‘가성비’에 맞는 ‘피자 뷔페’ 도입을 기본으로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리뉴얼을 통해 최고 50%대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초점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41개 매장이 참여했으며, 올 연말까지 90개점이 목표다. 대표적으로 양산점과 포항대이점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월 매출이 135%, 107%(2배 이상) 증가했다.

김수연 대리는 “2월 SRP를 진행한 김제점 점주가 재개점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매장 앞에 손님들이 줄 선 것을 몇년 만에 보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 뷔페 전환을 통해

순조로운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다이너미 피자 부활’을 알리고 있다. 김수연 대리는 “미스터피자는 넓은 매장 중심의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성장한 브랜드다.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는 기존 시그니처인 ‘샐러드바’를 비롯한 내점 영업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통해 배달과 내점의 균형을 맞추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점’과 ‘배달’ 매출 비중이 55% 대 45%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지명찬 주임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외에 매장 분위기, 인테리어 등 세분된 기준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SRP가 각 매장의 상권, 주고객층, 운영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세일 마친 백화점... 이번엔 해외 명품

롯데, 상반기 결산 최대 90% 할인
신세계도 300억 규모 물량 풀어

주요 백화점들이 여름 세일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부터 한 달여간 대대적인 해외 명품 브랜드 할인전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16일부터 상반기 결산 해외명품 대전을 열고 100여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는 올해 상반기 해외명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인 점에 주목해 행사 물량을 대거 확보하고 참여 점포도 지난해 2~3개 점에서 올해 5개 점으로 확대했다.

마이클코어스, 발리, 에트로 등 명품 잡화 브랜드와 에스까다, 맥스마라 센존 등 의류 브랜드 상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하고 명품 포피 브랜드 사바티에와 패딩 브랜드 노비스, 파라점퍼스 등도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본점에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잠실점에서는 16~21일에 이어 8월 14~18일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본점은 8월 1~8일, 대구점에서는 8월 15~19일, 인천터미널점에서는 8월 22~25일 행사가 이어진다.

행사 기간 롯데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에 따라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50만 원 구매 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도 18일부터 한달간 150



롯데백화점 상반기 결산 해외명품 대전.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3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선보이는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에 들어간다.

행사는 18~21일, 25~28일 두 차례의 본점 행사를 시작으로 센텀시티점에서 다음달 1~4일, 강남점과 대구 신세계에서 다음달 8~11일, 경기점에서는 다음달 15~18일 차례로 열린다.

본점의 첫 번째 행사에서는 오직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럭셔리 편집숍을 중심으로 할인에 나선다. 분더샵, 블루핏, 마이분 등 신세계 명품 편집숍과 델라라나, 일라이 등 자체 브랜드를 할인 판매한다. 두 번째 행사에서는 사카이, 마르니, 요지 아모토, 헨리베글린,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현대백화점은 22일부터 압구정본점을 시작으로 해외 패션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한데 모은 대규모 할인전을 연다.

박미선 기자 only@

프리미엄 ‘1% 수박’ 맛보세요

이마트가 ‘1% 수박(사진)’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 뛰어든다.

이마트는 성수점, 죽전점, 분당점 등 수도권 19개 점포를 중심으로 ‘1% 수박’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각사각한 과육, 달고 진한 수박 향이 특징인 1% 수박은 외관상으로 껍질이 흑색을 띠고 수박 특유의 줄무늬가 없다. 또 품종 차별화와 정밀한 생산 관리를 통해 12브릭스 이상의 고당도를 자랑하고, 신규 품종의 수박을 시범 재배한 후 생산 물량 가운데 일부를 상품화했다.

1% 수박은 국내 유통업체에서는 처음

이마트서 350통 한정 판매



으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350통 한정 물량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2만4800원(8kg이

상)이다.

1% 수박은 망고, 포도 등 당도가 높은 수입 과일의 인기로 수박 경쟁력이 떨어지자 정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다양한 신종 수박을 도입해 시범 재배에 나섰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일본으로 수박을 수출했고, 2015년에는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탐과채 단지 종합평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법석 이마트 과일팀장은 “1% 수박은 일본에서 매년 6월 실시되는 수박 경매에서 한 통당 최고 낙찰 금액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텐스케 수박’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최고급”이라며 “우수 생산자, 협력사와의 협력 끝에 생산에 성공한 만큼 향후 1% 수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사모펀드 운용업계 “우리도 걸릴라” ‘OEM 펀드’ 주의보

금융당국,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일부 영업정지’ 처분
판매사 펀드 설정·운용 지시 ‘NH농협은행’ 징계안도 검토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들 사이에서 자체 ‘OEM 펀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이 업계 관행처럼 이어졌던 판매사의 펀드 설정·운용 개입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소나기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판매사인 A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은 사모 전문 운용사인 B자산운용에 ‘OEM펀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B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들이 OEM펀드 이슈가 있는 만큼 조심하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일부 운용사가 제재를 받고, 판매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경계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접목한 사모펀드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규모가 작거나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최근 당국의 제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

는 것 같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6~2018년 OEM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설정·운용을 지시한 NH농협은행도 징계안이 검토되고 있다.

OEM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 설정 전후는 물론 운용과정이나 만기 시에도 판매사의 입김

이 작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OEM펀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5년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문 사모 운용사는 2016년 말 79개사에서 작년 말 169개사로 급증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용사들이 운용자산(AUM) 규모를 늘리기 위해 판매사들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 펀드를 설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사모 운용사 관계자는 “수익자와 펀드에 담긴 채권이나 주식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에 ‘비이클’ 구조만 빌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AUM을 1조 원대로 늘린 운용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의 OEM펀드 논란은 사모 펀드 급성장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소규모 운용사들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고, 위법인 줄 알면서도 OEM펀드 설정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계약 업종 시총 4兆 증발

지난달 28.9兆로 6개월새 12% ↓
올 상반기 코스닥 업종 중 최대
‘인보사 사태’ 등 줄액재에 타격



상반기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의 시총액이 4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업종 중 시총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제약 업종 시총은 2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1000억 원(12.3%) 줄어들었다. 제약 업종 소속 상장종목은 지난해 말 83개에서 올해 6월 말 86개로 3개 늘었지만 시총은 오히려 감소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제약 업종 소속 종목 가운데 가장 시총규모가 큰 메디톡스는 상반기 시총이 7000억 원 줄었고, 셀트리온제약은 6000억 원 감소했다.

‘인보사’ 사태를 겪은 코오롱티슈진의 시총은 지난해 말 2조6000억 원에서 5월 29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5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스닥 시총 감소액은 제약업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3조8000억 원) △기타서비스(-1조7000억 원) △오락·문화(-1조2000억 원) △운송장비·부품(-1조2000억 원) 등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시총이 4조2000억 원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IT부품(2조9000억 원) △통신장비(2조7000억 원) △일반전기전자(2조 원) 등의 순으로 증가 규모가 컸다.

계약 업종에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에서 ‘유통’, 신라젠·헬릭스미스는 ‘기타서비스’, 에이치엘비는 ‘운송장비·부품’ 업종에 각각 소속돼 있다. 즉, 시장에서 사실상 제약·바이오주로 인식되는 종목들까지 고려하면 제약 관련 시총 감소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2조5000억 원 줄었고 신라젠(-1조6000억 원), 헬릭스미스(-1조4000억 원), 에이치엘비(-1조7000억 원) 등도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들 4개사의 시총 감소분만 7조2000억 원 규모다. 오연 기자 yerin2837@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쉬’ 내달 6개국 출시”

CEO 인터뷰

전하진 쉬코리아 대표

P2P 활용 대화 내용 암호화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도 추진



국번처기협회 부회장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쉬코리아와 연이 닿았다.

“내달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쉬’의 MVP 버전(초기버전)을 6개국에서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메신저를 시작으로 지갑 등이 결합한 플랫폼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3일 전하진(사진) 쉬(SHH)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이투데이와 만나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를 개발하는 쉬코리아는 팍스넷의 100% 자회사다.

전하진 대표는 벤처기업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글과컴퓨터 대표, 한

그는 “국경을 초월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쉬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사회에서 사람들의 눈, 귀, 입을 대신하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쉬코리아는 메신저 쉬를 개발하고 있다. 모회사 팍스넷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그리다(Grida)를 기반으로 개발된 탈중앙화 방식의 메신저다. P2P(Peer to peer)를 활용해 모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탈중앙화 방식 특성상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하며, 삭제 전 데이터들도 유출될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니로닉

스(Neironix)로부터 쉬는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의 보안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팍스넷에 이어 계열사 비트팍스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구상이다. 비트팍스는 블록체인의 결제 시스템 크로스월렛을 개발하고 있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점을 기반으로 쉬 메신저에 크로스월렛을 탑재해 결제·환전·구매·송금·대출 등 이용자 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팍스넷은 쉬, 비트팍스 등을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전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실시간 무역거래도 가능하다”며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맞바꾸는 아토믹 스와프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ljh@

매도 물량 쏟아지는 제약·바이오株

계약·바이오주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 제약 업종에서 총 1993억 원의 순매도(개인 175억 원, 기관 1818억 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해당 업종 지수들도 각각 8.02%, 3.78% 하락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권리 반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임상결과,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センチ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바이오주의 악몽은 4월부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유통·판매 중지를 요청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현재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에이치엘비의 위암 3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임상3상 실패 △한미약품의 비만·당뇨치료제 ‘HM12525A’의 권리 반환 논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신(보톡스) 제품 불법유통 의혹 △신라젠 현직 임원 지분 전량 매각 등으로 시장은 휘청였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IPO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코스닥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너럴바이오가 최근 심사를 철회했다. 티움바이오, 듀캬바이오, 노터스, 녹십자웰빙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결과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명성티엔에스 “2차전지 분리막 코팅 자동화장비 상용화”

명성티엔에스가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고내열성 분리막 코팅 자동화장비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분리막 코팅 후가공 소재인 CR바인더(CR Binder)의 제품화를 마치고 고객사 확보에 돌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14일 “고내열성 분리막 코팅 자동화장비는 3분기 말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상용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자동화 공정에서 필요한 CR바인더 기술도 확보했다”며 “당사의 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디스플레이 제조설비 기업 명성티엔에스는 2차전지 분리막 및 디스플레이 편광필름 제조설비에 관한 전공정 설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열 안전



성이 높은 폴리이미드(PI) 분리막 추출기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바 있다.

현재 명성티엔에스의 2차전지 사업은 2차전지 분리막 제조설비(연신기, 추출기, 코팅기 등), 분리막 유닛(Unit)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설비 생산라인은 국내에서 명성티엔에스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막 생산설비의 일부본인 분리막 코팅기는 국내에서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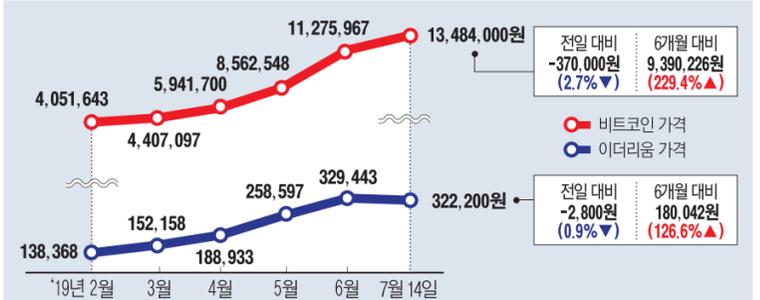
업체가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동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2차전지 제품 기술이 지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분리막 내열성 향상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명성티엔에스는 중대형 리튬 2차전지용 고내열성 분리막 코팅 자동화장비를 개발 중인 상황이다. 해당 장비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 까지 대구테크노파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명성티엔에스의 고내열성 분리막 코팅자동화 장비는 기존의 분리막 코팅설비의 성능을 개선했으며, 뛰어난 내열특성과 통기성을 보유한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고종민 기자 ki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10에 게재됐습니다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7월 14일 18: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410,300 | -5,000 (1.2%▼) | 모네로 | 108,400 | -700 (0.6%▼) |
| 리플 | 399 | -3 (0.7%▼) | 비트코인골드 | 30,650 | -890 (2.8%▼) |
| 라이트코인 | 121,000 | -1,600 (1.3%▼) | 이더리움클래식 | 7,835 | -115 (1.4%▼) |
| 대시 | 186,000 | -3,600 (1.9%▼) | 퀀텀 | 4,378 | -149 (3.3%▼)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전세 내리고 매매 뛰고... 고덕동의 '이상한 주택시장'

지난달 입주 시작... 내년 2월까지 1.4만 가구 예정
전세 물량 넘쳐나며 한 달 새 3000만 원까지 빠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앞두고 "새 아파트 더 오른다"
집주인들 분양권 매물 거두거나 호가 크게 높여

서울 '강남4구' 중 막내로 불리는 강동구. 이곳에서도 주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고덕동 주택시장이 요즘 이상하다. 올 연말까지 1만 가구가 넘는 '입주 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매매 값은 상승세가 가파르다. 통상 매매·전세시장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곳 고덕동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전셋값 약세 뚜렷-업계에 따르면 고덕동 일대에서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190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만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 물량이 넘쳐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입주한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4억~4억5000만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2000만 원가량 내렸다.

9월 입주를 앞둔 '고덕 그라시움'도 전셋값이 하락세다. 전용 84㎡의 경우 4억9000만~5억2000만 원대 매물이 적절하게 나와 있다. 지난달 말보다 1000만 원가량 내린 것이다.

주변 기존단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고덕 아이파크' 전용 59㎡ 전세 시세는 4억4000만~4억5000만 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많게는 3000만 원 넘게 빠졌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 주변 아파트 전세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고덕동이 속한 강동구 아파트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완연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0.46% 떨어졌다. 지난주에만 0.03% 내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양도세 부담에 분양권 매물 '쑩'... 매도 호가 '경풍' 하지만 고덕동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세시장과는 판판이다.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8층) 분양권

은 이달 초 12억3800만 원(6층)에 팔렸다. 작년 9월 고점 수준이다. 이 주택형이 지난달 11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6000여만 원 오른 셈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로열동·로열층은 13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양도세 부담으로 분양권 매물이 크게 줄면서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동에서 이미 입주한 아파트 중 대장주로 꼽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는 현재 9억5000만 원 선으로 한 달

새 3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되면 서울에 주택 공급이 많이 끊겨 새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반시설이 잘 깔린 데다 학군도 좋은 고덕동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층으로 바뀌면 집값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광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현재 짓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입주하면 고덕동 일대가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아파트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510가구의 대규모 입주로 전셋값 하락이 접착됐던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초기 잠깐의 조정기를 거친 뒤 곧바로 상승 전환한 것처럼 고덕동 일대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지희 기자 jhsseo@

집값 떨어지는 부산 "조정지역 해제"를

해운대·동래·수영구 해제 요청
아파트 매매가 올들어 2~3% ↓
"투기 아닌 실거래도 얼어붙어"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곳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남·수영·해운대·연제·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작년 8월에 기장군이,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진·남·연제구가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2.59% 하락했다. 동래(3.49%)·해운대(2.92%)·수영구(2.55%) 순으로 내렸다. 모두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크다.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 전체를 지정하면서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까지 얼어붙고 있다"며 부산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방치됐던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변신

LH, 12일 정비사업 착공식

지난 22년간 방치됐던 경기도 과천시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변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제1호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인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건축물을 공공이 주도해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과천 우정병원은 1991년 착공한 종합병원이다. 그러나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이에 2015년 공사 중단 건축물 1차 선도시업지구로 선정됐다. 국토부·지자체·LH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협조한 결과 2017년 사업계획 확정, 2018년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올해 4월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정비사업을 통해 우정병원 부지에는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174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물량은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전국에 산재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중천 과천시장, 변창흠 LH 사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남동경 경기도 도시정책관 및 과천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여의도·김포 통진·부산 가야... "반갑다, 새 아파트"

여의도, 14년 만에 1303가구
통진, 새 민간 분양 20년 걸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유독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때문에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선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많은 관심과 함께 청약 성적도 양호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와 김포 통진, 부산 가야에서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최소 10년 이상 신규 공급이 없었던 곳이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14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005년 '여의도 자이' 분양 이후 오랜만에 분양 물량이 나오는 셈이다.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서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해 총

여의도·통진·가야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

| 단지명 | 특징 | 시공사 |
|---------------|-------------------------------|------|
| 브라이트 여의도 | 여의도 14년 만에 분양 | GS건설 |
|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 김포시 통진 20년 만에 1군 브랜드 아파트 민간분양 | 대림산업 |
|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 부산진구 내 롯데캐슬 브랜드 11년 만에 분양 | 롯데건설 |

1303가구(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규모다. 우선 오피스텔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김포 통진에서는 무려 20년 만에 1군 브랜드 새 아파트가 내달 선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했던 '마송현대1차'가 1997년 입주한 이후 첫 분양이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는 종종 공급됐지만 올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이다.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될 이 단지는 김포에서도

마지막 택지지구로 알려진 마송지구 B-6블록에 들어선다. 총 574가구(전용면적 66~84㎡) 규모로 전 가구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진구에서 오랜만에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나온다. 2008년 같은 부산진구 개곡동에서 롯데캐슬이 분양된 이후 11년 만이다.

가야동 가야3구역을 재개발한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로 총 935가구 중 640가구(전용면적 59~102㎡)가 이달 일반에 분양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7월 셋째 주 전국에서 7106가구가 분양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견본주택은 서

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등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곳에서 진행된다. 15일에 경기 용인시 신봉동 '힐스테이트 광교산(7블록)', 16일에는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 경지 아리움',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 리슈빌 DS'에서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8곳이다. 경기 부천시 작동 '부천 동도 센트리움 까치울 숲',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신일 해피트리' 등 6곳이 15일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4개 사업장에서 개관 예정이다. 19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셀' 등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 날짜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 | |
|-------------|----|-----|------|-------|---------------------------|-----------------------|-------------|----------------|---------------------------|------|---------------------------|------------------------|---------------------------|
| 7/15 (월) | 접수 | 경기도 | 경기 | 하남시 | 감일동 | 하남감일A3(영구임대)(~7/19) | 7/18 (목) | 접수 | 서울 | 은평구 | 응암동 | e편한세상백련산 1순위(기타지역) | |
| | | | 전남 | 구례군 | 구례읍 | 구례미리벨 1순위 | | | 경기 | 하남시 | 감일동 | 하남감일A3(국민임대)(~7/22) | |
| | | | 충남 | 아산시 | 탕정면 | 이산탕정2-A5(영구임대)(~7/19) | | | 부산 | 부산진구 | 가야동 |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1순위 | |
| | | | 발표 | 경기 | 용인시 | 신봉동 | | | 힐스테이트광교산(7BL) | 광주 | 북구 | 중흥동 | 광주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1순위 |
| 7/16 (화) | 접수 | 서울 | 서울 | 노원구 | 공릉동 | 화랑대디오베이션 1순위(당해지역) | 7/19 (금) | 오른 | 충남 | 천안시 | 원성동 | 신천안한성필하우스에듀타운(1단지) 1순위 | |
| | | | 전남 | 구례군 | 구례읍 | 구례미리벨 2순위 | | | 신천안한성필하우스에듀타운(2단지) 1순위 | | | | |
| | | | 발표 | 서울 | 강동구 | 길동 | | | 길동경지Arium | 세종 | 세종시 | 금남면 | 세종하늘채센트레빌(4-2생활권P3)L3 2순위 |
| | | | 부산 | 수영구 | 민락동 | 광안리슈빌DS | | | 세종 | 하남시 | 세종하늘채센트레빌(4-2생활권P3)M5 2순위 | | |
| 7/17 (수) | 접수 | 서울 | 광진구 | 구의동 | 구의자이엘라 1순위(당해지역) | 7/19 (금) | 접수 | 서울 | 동대문구 | 전농동 |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 | |
| | | | 노원구 | 공릉동 | 화랑대디오베이션 1순위(기타지역) | | | 대구 | 달성군 | 화원읍 |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 | |
| | | | 은평구 | 응암동 | e편한세상백련산 1순위(당해지역) | | | 광주 | 광산구 | 신가동 | 모아엘지더수원 | | |
| | | | 중랑구 | 망우동 | 서울양원S2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7/18) | | | 부산 | 북구 | 운암동 | 중외공원모아미래도 | | |
| | | | 전남 | 순천시 | 서면 | | |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 1순위 | 서울 | 광진구 | 구의동 | 구의자이엘라 2순위 | |
| | | | 발표 | 세종 | 세종시 | | | 금남면 | 세종하늘채센트레빌(4-2생활권P3)L3 1순위 | 부산 | 부산진구 | 가야동 |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2순위 |
| 7/18 (목) | 접수 | 서울 | 서울 | 방학동 | 성진뉴파크뷰 | 광주 | 북구 | 중흥동 | 광주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2순위 | | | | |
| | | | 전남 | 순천시 | 조례동 | 조례2차골드클래스그니처 | | | | | | |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2962억〉 〈213억〉
강남구 재산세, 강북구의 14배

지난해 13배보다 더 벌어져
 전체 1.8조... 강남3구 38%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는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는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김진희 기자 jh6945@



썩썩 갈라진 소양호 최근 강원 영서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인제군 남면 소양호가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뉴시스

대법 “손 잡았어도 기습 추행은 범죄” 너 때문에 호캉스 간다

성범죄 사건 무고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피해자(고소인)에게 무고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치 양상은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인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내세워 피해 사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4년 직장 상사인 B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B 씨가 2016년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은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봤다. A 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 이전에 B 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손을 잡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증거가 됐다. 2심도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산책을 하기도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일부 접촉을 용인했다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이를 반복할 수 있고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면 거부할 자유를 갖는다”면서 “기습적 강제추행까지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이색 수영장 보유 국내 호텔은?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많은 여행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 바쁜 일상과 부담스러운 성수기 가격으로 장거리 휴가가 어렵다면, 국내에서 호캉스를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호텔스컴바인은 지난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적인 수영장을 보유한 국내 호텔을 소개했다.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울여루 부산에서 가장 사랑받는 호텔로 손꼽혔다. 강릉은 이색적인 호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오픈한 골든 툰립 스카 이베이 경포 호텔은 두 개의 타워가 스카 이브릿지로 연결된 인상적인 외관으로 여행객들을 사로잡았다. 진정한 심을 얻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정선에 위치한 파크루시 리조트 & 웰니스를 추천한다.

김소희 기자 ksh@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 합의했어도 처벌

아청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최소 징역 3년... 공소시효 폐지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 성관계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 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7 VOL. 05

다시 빛을 반짝이게 하며
“평생 일귀 좋은 꿈 나누며 살고 싶다”

보통 세시대로
 한가롭게 지어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scent

COVERSTORY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PART1. 가격 속 향훈 - 까마득한 남새가 새삼 그립습니다
 PART2. 남새에 관한 설문조사 - 당신의 남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3. 약취 발생시키는 질환과 해결법 - 물·일·말, 약취의 근원론?
 PART4. 일 남새 고민 - 구취 집으러다 만나는 소통 공간
 PART5. 일상 속 약취 솔루션 - 상쾌한 여름을 위한 천연 탈취 DIY
 PART6. 향기의 품격 - 한테사회는 향기가 고르다
 PART7. 인생의 내음 - 향기를 부르는 이야기들

플레이팅 시니어 위협하는 심장병

인간의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상황, 즉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심장이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병이라고 말하기 모호할 정도다. 심장병 중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 질환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학과 장성원(장철호)·4층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귀촌 별생각 없었던 귀촌이 별나게 즐겁습니다

별생각과 공리를 더하고도 망설이게 되는 게 귀촌이나 귀농이다. 그러나 김석봉 씨는 별생각 없이 시골로 왔다. 무슨 성취처럼 영롱한 오랑중의 현상이 그를 이끈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나 깨나 귀촌을 숙원으로 여긴 바가 없었으니 하필 추미진 산골로 타러가는 계기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여하튼, 별 생각 없이 귀촌한 석봉 씨는 별 탈 없이 살아왔다. 별생각이 없었으니 별 풀림도 없었을 청량지다. 사실은 별 풀림이 벌어졌다. 별별 일이 일어나며 살아오는 속내가 술을 돌리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심아 있는 한 인생은
 인후나 미란성이다
 시인 이규리

이억되고 살 거 없다
 물처럼 살면 빛나거든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정열로
 함박웃음 짓다
 마술사 겸 영화인 조용서 씨

타박타박 신책 푸른 바다 벗삼아 걷는 여수 낭만길

하루 동안 여수를 일처여 여행하고 싶다면, 오도도를 중심으로 한 해장공원 일대를 둘러보길 권한다. 동백숲이 그윽한 오도도와 스텝 넘치는 해상케이블카, 항구 정취가 가득한 종포해장공원, 여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빅오쇼와 낭만포차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걷는 내내 여수의 비탈길 바다가 펼쳐지는 이 코스를 소개한다.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질, 이름하여 '고고'가게를 찾아가자. 지하철 인근으로만 산책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올레이드 사찰음식
원기회복에 도움 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마보기
 김성우 변호사
내 재산은 어디로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12명 “한은, 8월 금리인하”… 6명은 ‘7월 베팅’



김남현의 일기일부

한국은행이 7월 내지 8월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7월보다는 8월에 더 무게를 뒀다. 경제상황이나 대내외 여건이 무르익었지만 무엇보다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하를 확인한 후 결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7월 인하에 나설 경우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7월보다 8월 인하에 무게를 두는 이유로 꼽았다. 그렇잖아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불가설명회 자리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로 볼 때 통화정책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력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추가 인하여력이 많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1~3월) 중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전기대비 -0.4%)을 기록한데다, 물가 역시 0%대로 지지부진했던 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7~8월중 인하 이후에도 추가로 한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시기는 연내보다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연준 7월 인하 확인 후 인하, 추가 인하 연내 보단 내년 = 이투데이가 12일 증권사 채권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2명은 8월 인하를, 6명은 이달(7월) 인하를 점쳤다. 금리인하는 시기문제일 뿐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달보다 8월이 많았던 이유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이 이달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연준 금리인하를 확인한 후 한은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결정자체가 그간 후행적이었던 점에 7월 연준 인하

를 확인한 후 8월에 인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달 금리인하를 주장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준 결정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았다. 실제 이달 금리인하를 예상한 김명실 KTX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인하하기 전에 먼저 (인하) 해야하는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급적 금리인하 카드를 아끼고, 추가 인하 기대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그널(신호)만 주면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온 상황”이라며 “한은도 이런 관점에서 완화적일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금리는 다음번에 내리겠다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제상황 악화...인하 여건 조성 FOMC 동향 살핀 뒤 결정 전망 추가 인하 시점은 내년 초 예측 물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듯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7월 인하를 단행한다면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달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정책당국자들의 시그널이 있었고, 연준도 7월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미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은 내부적으로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사실상 두 명에 달했고, 이주열 총재도 입장을 바꿨다. 파월 연준 의장도 7월 인하를 시사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하는데 무리는 없을 듯 싶다”고 말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했다. 다만 정책여력 많지 않는데다 자칫 부동산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

다. 아울러 연준의 동향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추가 인하 시점도 연내보다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이후엔 연준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화하는 등 최근 들쭉이는 부동산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은의 추가 인하도 내년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성장률 2%대 초반, 물가 0%대 후반으로 낮춘다 =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도 줄줄이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대세다. 반면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성장률에선 한 명에, 물가에선 3명에 그쳤다. 그나마 성장률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본 전문가도 유지 내지 0.1%포인트 하향조정을 예상해 사실상 하향조정에 무게를 뒀다.

성장률과 물가 하향 조정의 근거로는 1분기 내지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최근 이어지는 수출 둔화 등을 꼽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출과 내수 지표들이 동시에 부진을 보이면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1분기 성장 둔화와 상반기 워낙 저조했던 물가를 반영한 수치 정도겠다”고 봤다.

반면 물가 전망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60달러대를 회복한 국제유가와 원·달러 상승,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은의 물가진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회복하고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도 한은이 보는 부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국제유가도 올라 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18일 7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한국은행 7월 금통위 및 수정경제전망 예측

| 증권사 | 7월 | 만장 일치 | 기준금리 | 올해 | 올해 |
|-------------|----|-------|--------------------|--------------|--------------|
| | | | 향후 전망 | 경제성장률 (2.5%) | 소비자물가 (1.1%) |
| 강승원 NH투자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내년 초 인하 | 2.3 | 0.7 |
| 공동락 대신증권 | 동결 | 2 이상 | 8월 인하+ 내년 1분기 인하 | 2.3 | 1.0 |
|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 인하 | O | 연내 동결 | 2%대 초반 | 0%대 후반 |
| 김명실 KTB투자증권 | 인하 | X | 내년 상반기 인하 | 2.2~2.3 | 1.0 |
|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 동결 | 3 | 8월 인하+ 내년 상반기 인하 | 2.3~2.4 | 1.0 |
| 김상훈 KB증권 | 동결 | 2 이상 | 8월 인하+ 연내 동결 | 2.3 | 0.9 |
| 김유미 키움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내년 초 인하 | 2.3 | 0.9~1.0 |
| 김지만 현대차증권 | 인하 | X | 10월 인하+ 내년 인하 | 2.3 | 0.9 |
| 문홍철 DB금융투자 | 동결 | 2~3 | 8월 인하+ 내년 초 인하 | 2.4 | 1.1 |
| 박태근 삼성증권 | 인하 | X | 내년 1분기 인하 | 2.3 | 0.9~1.0 |
| 백운민 교보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내년 상반기 인하 | 2.2 | 0.9 |
|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내년 초 인하여지 | 2.3 | 0.9 |
| 신 월 SK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내년 1분기 인하 | 2.4 | 0.9 |
|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 동결 | 3 | 8월 인하+ 내년 2회 인하 | 2.4 | 0.9~1.0 |
| 윤여삼 메리츠증권 | 동결 | 2 | 8월 인하 | 2.3 | 0.9 |
| 이미션 하나금융투자 | 인하 | X | 연내 내지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 2.3 | 1.1 |
| 이재형 유안타증권 | 인하 | X | 내년엔 금리인상 압력 | 2.4~2.5 | 1.1 |
| 조용구 신영증권 | 동결 | 2 이상 | 8월 인하+ 내년 상반기 인하 | 2.3 | 0.9 |

*괄호는 한국은행 2019년 4월 경제전망치, 만장일치 부문 (o: 만장일치, x: 소수의견 1인, 숫자 소수의견 인원수) ※출처: 각 사, 이룸순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5월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우와 맞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나섰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변로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8면 | 1500원 / 2019년 7월 15일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문물,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019.8.1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문물,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019.8.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즐기는 뉴트로 감성여행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無정전 백업'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전기쟁이'들

SK울산컴플렉스 전기1유닛, 작년 한 해 25회 시행

2011년 정전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후 리스크 개선 나서 "단 1초도 용납 않는다"...전원 끄지 않고 백업작업 혁신 이뤄

전기는 아주 작은 오차,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 관련 백업 작업을 할 때는 공정 스케줄 조정,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감내하면서 전기를 끄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에는 어떠한 공정의 전원도 끄지 않고 전기 관련 백업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불가능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무정전 백업'을 현실로 만든 SK울산컴플렉스(SK울산 CLX) '전기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SK 울산CLX 전기1 유닛(Unit)의 행동에 시동을 건 것은 2011년 울산을 한순간에 감압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대규모 정전사고였다. 당시 이 사고로 SK울산 CLX 주 공장 지역 대부분 공장의 가동이 멈췄다.

전기1 유닛과 전기기술 유닛은 이 사고를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2015년 154kV 수전 변전소 사이에 ATS(Auto Transfer System)를 설치한 것이다. 정전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정전과 동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장치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리스크를 혁신적

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전기1 Unit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활동을 모의했다. 바로 무(無)정전 백업이다. 전기설비의 계획 정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기간에 공정을 세워야 하는 생산 현장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축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전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작년 한 해 동안 스물다섯 차례 무(無)정전 백업을 시행했다. 그중에는 유틸리티 센터(Utility Center, 변전소 혹은 전기생산 관련 설비) 간의 백업도 포함돼 있었다.

최인실 SK에너지 전기1 유닛 선임 대리는 "두 변전소의 전원을 연결하는 작업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위상이 다른 두 소스의 전기를 합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며, 0.001%의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조건이, 그것도 단 한 번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큰일을 성공시켜서인지 그 후부터는 순조롭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기1 유닛은 투철하게



SK 울산컴플렉스 전기1유닛 팀원들. 어떤 상황에서도 정전되지 않는 공장을 목표로 작년 한 해 동안 스물다섯 차례의 무정전 백업을 시행했다.

책임 정신을 바탕으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수도 없이 체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차에 접어들어 전기진단반은 본업인 진단 업무 외에 실용실 운영이라는 특별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중호 전기1 유닛 선임 대리는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진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에 일부러 손상을 주고, 전기 설비를 물에 담그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모터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9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투철하게

업무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전기쟁이'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김태문 전기1 유닛 선임 대리는 "'쟁이'는 프로페셔널의 다른 말이다"며 "끝까지 파고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기쟁이들은 올해도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수전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 설비로 인한 안전·환경 이슈 유발 가능성이 높은 설비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면서도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기사판

학술원 신입 회원 6명 새로 선출



대한민국학술원은 12일 총회를 열어 신입 회원 6명을 선출했다. 신입 회원은 한국사 분야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농생명화학 분야 김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유체역학 분야 유정열 서울대 명예교수, 로마법 분야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 영문학 분야 장경렬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아시아사 분야 김호동 서울대 석좌교수다. 회원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지위를 누리며, 학술 연구 활동 시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정원은 인문·사회과학부 75명, 자연과학부 75명이다. 회원증 수여식은 19일 오후 2시 서초구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건설공제조합, 서경민 신입 상무 선임

건설공제조합은 12일 신입 상무로 서경민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서경민 신입 상무는 1993년 조합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여의도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입 상무의 임기는 이번 달 21일부터 3년이다.



제일기획 아이디어 대상 '미세먼지...'

제일기획은 11일 서강대 메리홀 대강당에서 제40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상명대 등 4개 학교 학생들이 고안한 옥외광고 '미세먼지 비상구' <사진>로 단순한 시각적 요소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설된 '올해의 동아리' 상은 대학생 연합 광고동아리 애드플래쉬가 차지했다.



부음

▲김준호(서울대 식물생태학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씨 별세, 박시현 씨 남편상, 김정원·공원(수원과학대 자동차학과 초빙교수)·주원(비엠에스 부사장) 씨 부친상, 장운화(예비역 공군 소장)·김근배(숭실대 경영학과 교수)·이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씨 장인상, 이정은 씨 시부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3410-6917

▲이재천 씨 별세, 이성구(사업)·용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씨 부친상, 배상하(CBS 마케팅위원) 씨 장인상 = 14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16일 오전, 010-2548-4771
▲조양진(동아투어 총무) 씨 별세, 고진하 씨 남편상, 조선영·조소연 씨 부친상 = 14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3층 2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430-0226
▲윤춘광(제주도의회 의원) 씨 별세 = 13일, 제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 17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앞마당, 장지 서귀포 추모공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삼성전자 상무 출신 조은정 씨

국장급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삼성 출신 여성 민간전문가가 임명됐다. 인사혁신처와 관세청은 조은정(57·사진) 전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역량개발 교육·마케팅 상무를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시행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여성 민간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조 원장은 약 25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인적자원개발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인사처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와 무역 규모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있다"며 "조 원장은 관세청의 이러한 당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파푸아 의료봉사 의료진 30명이 1160여명 무료진료... '기업시민' 실천 앞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맞는 의료봉사를 전개하면서 해외에서도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건강한여성재단,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팜 오일(Palm Oil)

법인이 소재한 지역이다.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역 내 병원, 학교, 종교시설 등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차별 없는 무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존중에 기반한 '기업시민'을 실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국내 및 현지 의료진 30여 명과 현지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해 파푸아 주민 11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펼쳤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임산부 지침 사항, 위생 관념 등 보건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기 사용법과 결과 판독 등 의료 교육도 병행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한라·아세아시멘트 임직원·가족, 희망의 집짓기 봉사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가 11·12일 임직원 자원봉사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 봉사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사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는 천안시 목천읍 소재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5월, 한라시멘트·아세아시

멘트와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체결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 후원의 일환이다.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는 올해 3월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가정 및 주거빈곤 가정 12가구를 위한 2층 연립주택 2개동이 신축되고 있다. 자녀와 함께 3년째 집짓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라시멘트 류영호 부장은 "한국해비타트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은 물론



가족에 또한 커졌다"며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준 회사와 한국해비타트 측에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장 전영만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혁신도시 개발추진단 혁신도시계획과장 박정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이소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남동경
◆국세청 ◇고위 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대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 ◇고위 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한재연 △광주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국세공무원교육

원장 조정목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 △전산정보관리관 김태호 △징세법무국장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임성빈 △조사국장 이준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송배우 △조사4국장 김동일 △국제거래조사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운영석
◆관세청 ◇과장급 전보 △분청 비서관 김우철 △분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박진희 △중앙관세분석소장 정운성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남성훈 △인천세관 휴대품통관2과장 황승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광준 △김포공항세관장 이범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박희규

△안산세관장 손영환 △서울세관 조사1국장 손문갑 △청주세관장 전민식 △양산세관장 이원상 △목포세관장 김성원 △관세청 송석범
◆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다자사업부장 양중배 △기업구조조정단(수석부장) 우정현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박준규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양규정 ◇부서장급 전보 △기업구조조정단 안중혁 △인프라금융부장 정순영 △서비스산업금융부장 박익환 △중소중견금융1부(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봉석 △중소중견금융1부(시흥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이종복 △사업협력부장 송오순 △경협사업

2부장 이재홍 △경협평가부장 손승호 △북한·동북아연구센터장 박유환 △남북경협실장 전선준 △디지털서비스부장 이익수 △안전운영부장 이윤관 △창원지점장 손영수 △울산지점장 김영석 △광주지점장 정두화 △전주지점장 위찬정 △구미출장소장 임경섭 △여수출장소장 이준재 △이스타블사무소장 이종성 △양근사무소장 유연주
◆미래에셋대우 ◇이사대우 승진 △런던현지법인 김승욱 △투자금융1본부 투자금융1팀 김주섭 △델타원(DeltaOne)팀 최선민
◆헤럴드 ◇실장 △회사발전TFT 팀장 김필수 △기획조정실 실장 신창훈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가 네트워크를 구사해 몇몇 산업을 파괴한 것 같은 움직임이 전 산업에서 일어난다. 그때 파괴자가 구사하는 것은 AI이며,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고 그는 보고 있다. GAF(A가 지금의 승자라면 10년 후, 수십 년 후의 승자를 내놓을 군(群)전략의 멤버들을 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AI(인공지능) 혁명의 지휘자가 되고 싶다’.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장 기대가 높은 ‘유니콘’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61) 회장의 말이다. 투자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악기 연주자, 자신을 지휘자로 칭하며 각사의 상승효과를 발휘시키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룹 투자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2017년 5월 발족한 10조 엔(약 100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다. 이제 투자가 거의 끝나 곧 2차 펀드가 조성될 참이다.

‘유니콘 헌터’로 불리는 손 회장의 구상은 ‘초지성시대(超知性時代)’를 살아갈 인재와 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그는 30년 후에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이른바 싱귤래리티(Singularity·특이점)에 도달하면 IoT(사물인터넷), AI, 스마트 로봇이 대체를 이룰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이 세 개의 융합기술에 의해 모든 산업이 재정의될 것으로 보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이 3중 세트에

손정의 회장의 AI 야심과 전략

집중해 ‘군(群)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그가 그리는 초지성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IoT 시대가 되면 한 사람당 100개 정도의 초지성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한다. IoT에 삽입되어 있는 칩 자체는 통신만 할 뿐이지만 클라우드가 연계되면 초지성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초지성이 바로 싱귤래리티다. 이러한 초지성이 자가용한 대보다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 로봇에 탑재되는 시대가 온다. 예컨대 우버가 이 로봇 덕에 절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시대가 가능해진다. 스마트 로봇의 수가 인구를 넘어 100억 대 시대 온다면 모든 산업이 재정의된다. 의학, 건설, 부동산, 교통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소프트뱅크 그룹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투자처를 보면 자동차 배차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반도체, 자동운전, 금융, 의료는 물론 위성통신, 농업, 광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손 회장의 머릿속에는 ‘AI 군전략’이

라는 키워드 아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AI를 구사해 다양한 산업을 파괴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기업군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마존은 인터넷상에 상품 판매 사이트를 설치해 소매업을 파괴했고, IT의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경유해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IT의 하드웨어 산업을 파괴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네트워크를 축으로 광고업계를 파괴했다. 애플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즉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단말시장을 창출했다. 모두가 네트워크를 무기로 한 파괴활동이며, 인터넷이란 플랫폼 상에서의 변혁으로 볼 수 있다.

손 회장은 “키워드가 인터넷에서 AI로 이동한다”고 분석한다.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가 네트워크를 구사해 몇몇 산업을 파괴한 것 같은 움직임이 전 산업에서 일어난다. 그때 파괴자가 구사하는 것은 AI이며,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고 그는 보고 있다. GAF(A가 지금의 승자라면 10년 후, 수십 년 후의 승자를 내놓을 군(群)전략의 멤버들을

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2016년 영국의 반도체 회사 ARM 매수를 시작으로 오래전 마련한 자신의 전략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손 회장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아무것도 연주하고 있지 않지만 실은 모든 것을 연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I 혁명의 연주자인 전문가집단에 투자하고, 지휘자로서 투자기업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에코시스템)를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손 회장의 이러한 야심은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2018년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0.5% 늘어난 2조3539억 엔에 달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의 평가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얼마 전 손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말을 우리 기업과 정책 당국 담당자들은 다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손 회장의 분석처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AI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사업을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교수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경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지만 근본 문제를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다. 헨리 민츠버그가 쓴 ‘이것이 경영이다(한빛비즈)’이다. 저자는 캐나다 맥길대학 교수로 경영 사상가로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인물이다. 읽는 내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처럼 생생한 책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경영자는 균형 잡힌 경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균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는 경영에서 잘 알려진 상당수 저자가 경영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영에서 균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한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톰 피터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행을 강조하는 저자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수행을 강조한 톰 피터스의 견해만 받아들인다면, 안에서 바깥으로 폭발하는 원심성 폭

발과 같이 경영의 중심에서 강력한 틀을 형성하던 앵커링 효과를 잃어버리게 돼 경영 업무가 사방팔방으로 분열된다.”

반면에 경영자를 중앙에서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분석가로 간주하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에만 집중하면 이 또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을 낳게 된다. “마이클 포터의 관점만을 선택한다면, 바깥에서 안으로 파열되는 구심성 파열과 같은 양상을 부추긴다.”

또 다른 사례를 들 수 있다. 생각하는 일, 즉 사고에 관한 것이다. 사고의 속성이 무거우므로 사고를 너무 많이 하면 경영자의 역량이 악화할 수 있다. 반대로 행동의 속성은 너무 가볍다. 이 때문에 행동을 너무 많이 하면 경영자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떤 경영자가 커뮤니케이션에만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게 되면 경영자는 어떤 업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연계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경영자는 어떤 업무

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통제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영자라면 ‘에스맨’만 있는 빈 껍데기 조직을 통제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영자는 균형 잡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10쪽에는 ‘경영의 역량’이란 제목으로 저자가 쓴 2004년도 연구 과제를 압축 정리한 도표가 소개되어 있다. 경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도표다. 이 책의 귀한 여러 부분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이 다. 개인 역량, 대인관계 역량, 정보 역량, 행동 역량이다. 예를 들어, 개인 역량에는 내적 자기관리 능력인 성찰과 전략적인 사고가 있다. 외적 자기관리에는 시간, 정보, 스트레스, 경력 관리가 있다. 그 밖에 일정 관리에는 시간 분할, 우선순위 설정, 어떤 다 설정, 동시 업무 진행인 저글링, 시기 설정에 관한 타이밍이 있다. 대인관계 역량에는 개별 직원에 대한 리딩, 그룹에 대한 리딩, 조직과 사업부에 대한 리딩, 관리와

• 헨리 민츠버그 ‘이것이 경영이다’

구체적 실행과 비전을 포괄하는 리더십

조직 및 사업부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리딩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말한다. 경영은 리더십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리딩은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이고, 직원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끌어내도록 돕는 일, 각 직원의 발전을 돕는 일로 구성된다. 저자의 책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멋진 명언이 나온다. 스탠퍼드대학 경영대학원 짐 마치는 “리더십은 배관 공사 업무일 뿐만 아니라 시적 통찰력을 포함하는 업무”라고 말한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단히 구체적인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보다 저 멀리 목표와 비전과 꿈을 향해 전진하는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 것이 리더십임을 강조하는 멋진 표현이다.

현장의 CEO는 현실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학 교수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두 가지 단점을 말끔하게 해결하였다. 일독을 강하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마리아 명언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독립운동가인 그녀는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고 체포돼 죽음을 앞둔 장남 안중근(安重根)을 면회하지 않았다. 뤼순감옥으로 형을 면회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그녀가 한 마지막 당부. “오늘은 그녀가 생을 마감한 날. 1862~1927.”

☆ 고사성어 / 대의명신(大義滅親)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멸한다는 뜻. 원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위(衛)나라 공자(公子) 주우(州吁)가 이복형제인 임금 환공(桓公)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올랐다. 주우를 태자로 세우지 말 것을 간언한 신하 석좌(石碏)의 아들 석후(石厚)가 주우와 자주 어울렸다. 주우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궁한 처지에 몰리자 석후가 아버지에게 방법을 물었다. 아버지는 진(陳)나라로 가라고 일러 주고는 진나라에 이런 전갈을 보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역적의 무리를 다스리지 못했으니, 임금을 죽인 아들 두 사람을 귀국에서 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사상식 / DSR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신조어 / 피뽕탈

취준생 사이에 유행하는 ‘피뽕탈고 탈락했다’의 줄임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종 면접 전에 신체검사를 할 때 혈액 검사도 포함한다.

☆ 유머 / 앞서가는 딸의 고민

대학에 들어간 딸이 미팅하러 간다고 하자 엄마가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 하면 뿌리쳐야 해”라고 했다.

딸의 질문. “근데 엄마, 남자가 내 손을 안 잡으려 하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임기훈 중기IT부/shagger1207@

‘제로페이’보다 급한 것

북 항공권으로 ‘사이즈’가 확 커졌다. 경품 값만 어렵잡아 5000만 원이 넘는다.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은 98억 원이다. 작년에는 34억 원을 썼다. 제로페이 출시 후 7개월간 홍보비만 132억 원이 든 셈이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색내기’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제로페이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을까. 유행행 항공권에 각종 공공시설 요금 할인까지 ‘띄우기’에 기울인 ‘눈물겨운’ 노력에 비해 실상은 처참하다.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사용액은 57억 원어치. 같은 기간 신용카드는 266조 원, 체크카드는 74조 원어치가 쓰였다. 많이 쓰이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타 결제수단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는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 흥행을 위한 경품 지급도 제대로 못 하는 어설피까지 갖췄으니 말이 필요없다.

진정 소상공인들을 도우려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결제수단에 집착하기보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이나 사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정부가 올해 전국 1200개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배정한 예산은 30억 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인 재보증 재원은 150억 원이다. 이를 보면 홍보비 132억 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정 사용액을 키우고 싶으면 사용자가 편히 쓸 수 있는 결제앱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옳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산업부 (02)799-2648

편집인 김상철
편집부 (02)799-2621
사회경제부 (02)799-2612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논설실장 추창근
뉴스팀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6741
중기IT부 (02)799-2646

편집국장 김덕현
사진팀 (02)799-2697
금융부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47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강경화 경질론, 청와대 책임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질 목소리가 높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로 치부하기에는 현재 외교 라인의 문제가 많다.

강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상황 악화가 예상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6일 뒤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공식 발표 후 외교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 주도의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며 민간기업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일본 실무 국장급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한일 외교라인이 사실상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의 호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다. 이 와중에 강 장관은 아프리카에 갔다. 김정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13일 2박 3일간 일본 출장을 갔지만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조차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다. 오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급하게 출국해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기업인과 지도층을 만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미 외교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선 모양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 방미해 3박 4일간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사실상 현재 외교부 내에서 김 차장만큼 미국 내 네트워크를 쌓은 인사는 거의 없어 김 차장이 직접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김 차장은 방미 중 자신이 직접 일본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같은 발언은 현 외교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만 있지 않겠다”는 강 장관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

외교라인 붕괴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 불만이 많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외교를 주도해 온 것이 외교부 4강 라인 약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 장관은 외교부 순회주의 타파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혁신을 주창했지만 오히려 조직 장악 실패로 외교부 내 조직 기강 해이와 복지부동만 불러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개각에서 강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외교부 실·국장 인사까지 청와대 입김이 닿는 한 후임 인사와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다. 외교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불멘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장관을 바라보기보다는 청와대와 연줄을 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부처 내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부처 내 공무원들을 만나다 보면 공(功)은 청와대가 차지하고 과(過)는 부처 책임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떠벌리고 다닐까. 실제 청와대가 부처에서 발표할 사안을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왜 청와대가 발표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안이고 계속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서 그렇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문의해 달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 부인하지만 “공은 취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이전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모르는 고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아직 모른다면 청와대의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핵심사안 2~3개만 남기고 부처에 권한과 인사권을 돌려줘야 제2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lawsdm@

시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전방위 피해 우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체제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일본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복조치로 인해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얽여 있는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파가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일본 측은 12일의 한-일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자 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8월 중순께 실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호국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이 목록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으나 한국만 빼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전략물자 수출이 개별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규제가 대부분 산업에 걸쳐 강화된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목록’을 분석한 결과다.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실무자 간 협의에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했다. 우리 측의

후속협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당사국 간에 직접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당분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만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반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기는 하나, 논의 이상의 해법이 나올 수 없는 단계다. 지금으로서는 상황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규제품목의 규정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임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세계 경제의 분업구조에 바탕을 둔 부품·소재와 완제품의 공급망 연결이 흔들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자칫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예산·세제·행정지원 등 고용자원을 총동원해 소재·부품개발을 전방위로 돕고, 일본의 추가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당장 실효적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외교적 해법 말고는 코앞에 닥친 최악의 위기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사회경제부 차장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는 “A 이사장의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며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 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A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에 소재한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B 씨는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해 1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며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사장에 당선된 B 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3월 현재 이사장이던 C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날 상황에 놓이자 대구 구 구청에서 국장 줄 테니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매월 2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일까. D 씨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임원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 씨의 경우 선거 당시 새마을금고에 임원이거나 대의원을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현직 이사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둘 사이에 검은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금융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는 ‘임직원 윤리현장’이 게재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는 준법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새마을금고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종합금융협동조합을 구현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임직원 상호 간 직장 예절을 지키며,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실현한다는 다짐의 글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행태를 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현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길 진정으로 바란다. tearand76@



선발등판(先發登板)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하여 성공적인 투구를 보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15일 아침, 후반기 첫 경기에도 선발 등판한다. 선발 등판,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웬만한 야구팬이라면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몰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선발(選拔)’이라고 쓰는지, ‘선발(先發)’이라고 쓰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가릴 선(選)’과 ‘뽑을 발(拔)’을 쓰는 ‘選拔’은 ‘가려 뽑는다’는 뜻이다. ‘먼저 선(先)’과 ‘나설 발(發)’을 쓰는 先發은 ‘먼저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한다고 할 때의 선발은 당연히 ‘先發’이라고 써야 한다. 야구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1회부터 맨 먼저(先)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것이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先發’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이다. 선발투수가 잘해야 팀의 사기가 오른다. 그러므로 선발투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장군에 비유하자면 선봉장

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발투수에겐만 ‘先發’이라는 말을 쓴다.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등판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발(二發) 등판, 삼발(三發) 등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계투’라고 한다. 계투는 繼投라고 쓰며 각 글자는 ‘이을 계’, ‘던질 투’라고 훈독한다. 선발투수의 뒤를 이어 던진다는 뜻이다. 달리, ‘구원(救援)’투수라고도 한다. ‘건질 구(救)’와 ‘당길 원(援)’을 쓰는 ‘救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끌어내 준다’는 뜻이다.

위험에 빠진 선발투수를 구원해서 상대팀의 타선을 막아야 팀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투수의 뒤를 이어 등판한 투수가 던지는 공은 다 선발투수에 대한 계투이고 구원의 공인 것이다. 선발투수는 그만큼 대우를 받는 자리이고, 책임 또한 막중한 자리이다. LA 다저스 팀 내의 많은 투수 중에서 류현진 선수가 先發 투수로 選拔된 것은 참 자랑스럽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심심한 건 내 취향 아님,
비스포크 냉장고로 누구보다 강렬하게”



BESPOKE
1도어+2도어
Satin Yellow +
Satin Coral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